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구문 연구

A Syntactic Study of the Modern Korean
Dependent Noun ‘jul’ Construction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장 혜 진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구문 연구

지도교수 유 필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장 혜 진

장혜진의 문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은섭 

심사위원 안 순태 

심사위원 유 필재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2월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구문 연구

장 혜 진

본고는 실제 언어 자료에서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구문으로 나누어 ‘사고’의 의미 하는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 ‘방법/능력’을 의미하는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구문의 ‘줄’로 나누어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1장은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 의존 명사 ‘줄’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에 관형형 어미가 선행하며 조사와 결합하며 서술어로 ‘알다, 모르다’를 주로 후행시킨다는 특징이 있었다. 선·후행하는 요소에 따라 의존 명사 ‘줄’을 구문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이 ‘사실’을 의미할 때 선·후행 요소의 제약을 덜 받지만 ‘방법/능력’을 의미할 때 선·후행 요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3장에서는 ‘관형형 줄 알-’ 구문이 ‘사고’를 의미할 때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던’을 취했는데 ‘-던’이 결합한 형태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있던’의 형태가 쓰였다. 선행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가 결합하였다. 서술어로 ‘알다’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인지동사 ‘생각하다, 예상하다’ 등이 후행하였다.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는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로’, 보조사 ‘은, 만, 도, 이나, 이야, 들’,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형인 ‘로만’을 취하였다. 조사 ‘로, 로만, 만, 이나’와 결합할 경우 서술어 ‘알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을 후행하였고 부정형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4장에서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이 ‘사고’를 의미 할 때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로 ‘-은, -는, -을, -던’이 모두 쓰였는데 ‘-던’의 경우 ‘-있던’의 형태가 실제로 쓰였다.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가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였다. 서술어로 ‘알다’의 부정 어휘 대립쌍인 ‘모르다’만 후행하였다. 결합하는 조사는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이야, 들, 들을’을 취하였다.

5장에서의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이 ‘방법/능력’을 의미할 때 관형형 어미 ‘-을’만을 취하며 선행 어간도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한 ‘동사, 의지형용사’가 결합하였다. 의존 명사 ‘줄’이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 도’가 결합하였고 보조사 ‘만, 이나’는 서술어 ‘알다’만 후행하고 보조사 ‘밖에’는 부정형인 ‘모르다’만 후행하는 특징이 있었다.

6장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는 ‘줄, 줄은, 줄이야, 줄요’가 있는데 주로 신문 기사, 도서 제목, 댓글이나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등에 주로 쓰이면서 후행하는 서술어를 생략하였다.

7장은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요약하였다.

주제어 : 의존 명사 ‘줄’, 구문, 사고, 방법/능력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
1.2. 본문의 전개	1
2. 연구사 검토	3
3. ‘관형형 줄 알-’ 구문	7
3.1. 선행하는 관형형	8
3.1.1. 관형형 어미 ‘-은’	9
3.1.2. 관형형 어미 ‘-는’	10
3.1.3. 관형형 어미 ‘-을’	10
3.1.4.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	11
3.1.5. 관형형 어미 ‘-었던/았던’	11
3.2. 결합하는 조사	13
3.2.1. 목적격 조사 ‘을’	14
3.2.2. 부사격 조사 ‘로’	14
3.2.3. 조사의 결합형 ‘로만’	15
3.2.4. 보조사 ‘만’	16
3.2.5. 보조사 ‘은’	17
3.2.6. 보조사 ‘도’	17
3.2.7. 보조사 ‘들’	18
3.2.8. 보조사 ‘이야’	18
3.2.9. 보조사 ‘이나’	19
3.3. 후행하는 서술어	20
4. ‘관형형 줄 모르-’ 구문	23
4.1. 선행하는 관형형	24
4.1.1. 관형형 어미 ‘-은’	24
4.1.2. 관형형 어미 ‘-는’	25
4.1.3. 관형형 어미 ‘-을’	25
4.1.4.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	26
4.1.5. 관형형 어미 ‘-었던/았던’	26

4.2. 결합하는 조사	27
4.2.1. 목적격 조사 ‘을’	27
4.2.2. 보조사 ‘은’	28
4.2.3. 보조사 ‘도’	28
4.2.4. 보조사 ‘들’	29
4.2.5. 보조사의 결합형 ‘들을’	29
4.2.6. 보조사 ‘이야’	30
5.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	30
5.1. 선행하는 어간	31
5.1.1. ‘동사 [-을 줄 알-]’ 구문	32
5.1.2. ‘동사 [-을 줄 모르-]’ 구문	33
5.2. 결합하는 조사	34
5.2.1. ‘동사 [-을 줄 알-]’ 구문	34
5.2.2. ‘동사 [-을 줄 모르-]’ 구문	35
5.3. 속어 ‘어쩔 줄(을) 모르-’	36
6.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	37
6.1. ‘줄’ 단독형	39
6.2. 줄은	41
6.3. 줄이야	42
6.4. 줄요	44
7. 결론	45
<참고문헌>	47
<Abstract>	49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구문에 따라 선·후행 요소와 분포 제약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는데 있다.

사전에 제시된 현대 한국어 의존 명사 ‘줄’의 의미는 방법, 셈속, 사실, 사태, 능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의존 명사 ‘줄’의 형태적·통사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의존 명사 ‘줄’의 개별적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법적 특성이 비슷한 의존 명사와 비교하거나 ‘줄’과 공기하는 요소에 따라 구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선·후행 요소에 따라 ‘사고’를 표현하는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과 ‘방법, 능력’을 표현하는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구문에 따른 문법적 특성을 파악해 본다.

첫째,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의 생각이나 사고 여부로 파악했을 경우 선행요소, 결합하는 조사, 후행하는 서술어로는 어떤 것이 쓰이는지 분류하면서 이때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의 의미가 할 수 있고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을 경우 선행요소, 후행하는 서술어로는 어떤 것이 쓰이는지 분류하면서 이때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줄’ 뒤에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인 ‘줄, 줄이야, 줄요, 줄은’을 분류하여 문법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현대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 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바탕으로 의존 명사 ‘줄’에 대해 연구한다. 현대국어 의존 명사에 대한 연구이기에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라 할지라도 고소설 혹은 현대가 아닌 배경의 용례는 제외한다.

본 논문의 말뭉치는 모든 말뭉치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대상이 아님을 밝혀둔다. 본고의 연구대상 말뭉치는 실제 언어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세종 계획’에 의한 2007년 배포판 <세종 말뭉치>, 2020년 11월 수정판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현대 국어만을 주로 분석하여 정리한다.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구조 분석을 위해 일부의 용례는 네이버(naver) ‘인터넷 뉴스, 도서 제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1.2. 본문의 전개

논의 목적에 의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 논문의 목적, 필요성, 연구 내용 및 범위를 밝힌다. 제2장은 선행연구와 사전에 제시된 의존 명사 ‘줄’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은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선·후행 요소를 파악하여 문법적 특징을 정리한다. 제4장은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선·후행 요소를 파악하여 문법적 특징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방법, 능력’의 의

미하는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 선·후행 요소를 파악하여 문법적 특징을 밝힌다. 제6장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의 선행요소를 파악하여 문법적 특징을 밝힌다. 제7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하여 의존 명사 ‘줄’의 구문에 따른 문법적 특징을 명확히 정리하며 마친다.

2. 연구사 검토

국어학 개론서에는 의존 명사의 종류와 특성을 연구하면서 ‘줄’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기보다는 의존 명사 부류 전체에 대한 연구였다. 이익섭·이상억·채완(2017), 이익섭(2018), 하신영(2019) 등이 있었다. 이익섭·이상억·채완(2017)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조사를 후치시키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존 명사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의존 명사는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데 ‘줄’은 목적어로만 쓰인다고 하였다. 이익섭(2018)에서 의존 명사들의 비교에서 ‘줄’, ‘체’를 같은 부류로 보고 조사 ‘을’만을 취하며 후행하는 서술어도 자유롭지 않아서 ‘알다, 모르다’하고만 어울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하신영(2019)에서도 의존 명사 ‘줄’의 여러 가지 문형을 제시하면서 ‘-는 줄 알다/모르다’에서 ‘-는 줄’이 ‘알다/모르다’의 목적어가 된다고 하였다.

의존 명사 ‘줄’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통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주행(1988), 홍사만(2003), 정연주(2016), 정혜선(20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의 의미는 ‘사실, 방도, 능력,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현대국어로 오면서 분포의 제약과 기능의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정연주(2016)에서 의존 명사 ‘줄’이 명사구 자리에서 쓰이는 요소로의 성격이 강해지고 공기 관계가 있는 동사들이 축소되어 ‘인지/사유내용’에 집중하면서 오늘날 대표적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정혜선(2018)에서는 중세국어 ‘줄’이 상황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ㄴ 줄’일 경우 현실 세계에서 인식된 상황, ‘-ㄴ 줄’일 경우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구어 말뭉치에서 현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줄’의 쓰임을 보면 ‘방법, 능력’보다는 ‘사고’의 의미기능의 용례가 훨씬 많았고 웹언어나 메신저를 통해 보더라도 ‘방법, 능력’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¹⁾

의존 명사 ‘줄’과 다른 의존 명사를 비교하여 통시적 특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존 명사 ‘것, 바, 줄’의 분포와 의미기능을 연구한 우형식(1995)에서는 ‘줄’이 분포상 가장 제약적이라고 하면서 의존 명사 ‘줄’은 동격관형절의 피수식어로만 기능하고 상위문의 서술어는 인지동사만을 취하며 상위문과 내포문의 주어, 서술어에 따라 문맥적 의미가 달라지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상위문과 내포문의 동일 주어 제약은 오민석(2015)에서 동일 주어 제약 보다는 내포문의 주어 명시여부에 따라 문맥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안정아(2005)에서는 의존 명사 ‘수’와 ‘줄’을 비교하여 ‘수’가 ‘방법, 능력, 경우’를 의미하고 ‘줄’은 ‘방법, 능력, 사실’의 의미인데 여기서 ‘능력’의 유무를 나타낼 때 간접적, 우회적,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존 명사 ‘수’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오경숙(2009)에서는 ‘줄 알다, 모르다’를 대상으로 화자와 문주어의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고찰하였는데 ‘줄 알다/모르다’의 능력, 방법, 방도의 의미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형식상으로 보면 ‘줄’과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반사실, 사실의 의미차이를 보이고 발화시와 사건시에 대한 일치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1) 이정민(2023)에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를 통사-의미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방법, 능력’보다는 ‘사실인식’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하였다. ‘사실인식’이라는 의미를 본고에서는 ‘사고’의 개념으로 보았다.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의존 명사 ‘줄’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연구한 이정훈(2006), 최정도(2007)이 있었다. 이정훈(2006)에서는 ‘줄’을 선행하는 관형절에 나타나는 용언의 분포를 확인하고 보조사 ‘만’이 후행하는 것을 확인하여 ‘줄’과 공기관계를 고찰하였다. 최정도(2007)에서는 의존 명사 목록을 만들고 의존 명사의 구성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공기관계에 있는 요소를 순위화하여 의미적 특성을 밝혔다. 관형형 어미와의 결합에서 빈도를 분석하여 ‘-던’을 제외하고 다른 관형형 어미의 결합은 제약이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량적 연구는 의존 명사의 선행행 요소에 따른 결합양상을 연구할 때 객관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김진희·김선혜(2012)의 의존 명사 ‘줄’에 관한 연구는 말뭉치를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 교재, 사전에서의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²⁾ 실제적·교육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의존 명사 ‘줄’의 특성이 아닌 ‘관형사형 어미(L/르) + 줄 (격조사/보조사) + 동사(인지동사)’ 전체 구성의 구체적인 특성을 기술하여 ‘줄’이 ‘화용 교육’의 관점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오민석(2015)에서는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전형적, 비전형적 구성으로 나누어 ‘줄’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서술하였다. 전형적인 구성은 ‘S2 [S1 V1]ending 줄을 알다/모르다’와 같이 구체화되어 의존 명사 ‘줄’이 ‘방법, 능력’ 또는 ‘사실’을 의미할 때 선행행 요소와의 결합과 제약을 비교하여 통사적 특징을 밝혔다. 비전형적 구성은 상위문 서술어가 ‘알다’만 가능한 ‘Vending 줄로 알다’, 내포문 명제를 부정하며 상위문 서술어가 ‘모르다’만 가능한 ‘Vending 줄을 모르다’, 상위문 서술어가 고정되어 있는 ‘Vending 줄로 아뢰오/아뢰웁니다’와 ‘Vending 줄이 있으랴’로 분류하였다.³⁾

사전에 기술된 의존 명사 ‘줄’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방법, 셈속’이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연세한국어사전』은 ‘방법, 능력, 사실 또는 ~것으로’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였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의 뒤에 쓰여 ‘방법, 셈속, 사실, 사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

줄⁴ 「의존 명사」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

·새댁은 밥을 지을 줄 모른다.

·그가 나를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공부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전체 일 등인 줄은 몰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김진희·김선혜(2012)에서의 말뭉치는 한국어 교재 말뭉치와 참조말뭉치(김한샘, 2005)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구축한 말뭉치임을 밝혔다.

3) 오민석(2015)에서 쓰인 ‘S2 [S1 V1]ending’은 의존 명사 ‘줄’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S2는 상위문의 주어, S1는 내포문의 주어, V1는 전형적인 구성의 용언의 어간, ending은 어미를 말한다. 오민석(2015)에서 ‘Vending 줄 알다/모르다’ 구성과 ‘Vending 줄로 알다, Vending 줄을 모르다’로 표현하는데 본 논문에서 인용할 때 원래의 논문에 있는 형태인 ‘Vending’로 쓴다.

(1)에 제시된 예시를 보면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을’만 있고 결합하는 조사는 ‘줄’ 단독형 이거나 ‘은’이 있을 뿐 목적격 조사 ‘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후행하는 서술어 ‘모르다, 생각하지 못하다’만 있어 대표적인 ‘알다’가 예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의존 명사 ‘줄’의 의미도 방법, 셈속으로만 제시되어 어떤 예시가 방법인지 셈속인지 그 용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⁴⁾

(2)

줄⁴ 「의존 명사」

① [어미 ‘-르’ 꼴 뒤에 쓰이어] (어떤 것을 하는) 방법.

연어: ~을 알다//모르다

예문: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스톱 할 줄 아세요?

② 어떤 것을 하는 능력.

연어: ~을 알다

예문: 우리는 오늘을 살되 내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③ [‘-ㄴ, -르’ 꼴 뒤에 쓰이어]

㉠ 것. 사실. 사태.

연어: ~을 알다//모르다

예문: 그는 그 먼 길을 뛰고 뛰어도 다리 아픈 줄을 몰랐다./나는 이게 도둑질한 물건인 줄은 정말 새까맣게 몰랐소.

㉡ ~ 것으로.

참고: ‘알다/여기다/추측하다’와 어울려 쓰임

예문: 은후 군의 전체 수석에는 아무런 반론의 여지가 없을 줄로 압니다./대학 들어가기 전엔 대학이 별세계인 줄 알았어요.

- 『연세한국어사전』

(2)에서는 관형형 어미 ‘-은, -을’뒤에 쓰이면서 의미는 ‘방법’뿐만 아니라 ‘능력, 사실, ~것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결합하는 조사는 ‘줄’단독형이거나 ‘을, 로’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전들보다 의존 명사 ‘줄’의 의미를 상세히 다루었다.

(3)

줄¹ 「의존 명사」

① (기본의미)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나타내는 말.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큰언니까지 날 속일 줄은 정말 몰랐어.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셈속은 돌아가는 사실의 내용 또는 속셈의 일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②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의 뒤에 쓰여, 어떤 사실이나 사태를 나타내는 말.

정신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 사람이 너인 줄 알았으면 문을 열었을 거야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3)에는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 -는, -을’을 제시했으나 ‘줄’이 의미가 ‘방법’일 경우 ‘-을’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셈속과 같은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의미는 ‘방법, 셈속’과 ‘사실, 사태’로 개별항목화하여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나 사전적 정의를 통해 본 의존 명사 ‘줄’의 의미는 ‘방법, 능력,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관형형이 선행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하고 후행하는 동사도 ‘알다, 모르다’의 인지동사에 국한된다. 의존 명사는 단독으로 문장을 형성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자립 명사가 아니라 선행 요소에 의해 문장에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기에 구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⁵⁾ 본고에서는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사고’의 의미기능을 하는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과 ‘방법, 능력’의 의미 기능을 하는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구문으로 나누었다.

5) 홍사만(2003:295)에서 ‘인지’의 의미는 후행하는 동사 ‘알다, 모르다’의 의미이지 {줄}의 의미라고 여겨지지 않으며 [-줄 알다(모르다)]가 ‘추측, 가능’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줄}의 의미가 아닌 상당구 전체의 의미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의존 명사 ‘줄’의 단독의 의미가 아닌 구문 형태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3. '관형형 줄 알-' 구문

본 장에서는 실제 언어 자료에서 찾은 '관형형 줄 알-' 구문이 '사고'를 의미할 때 선행 어간, 선행 관형형, 결합하는 조사, 후행하는 서술어로 나누어 문법적 특성을 정리하기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은, -는, -을'을 주로 취한다고 하였다. 최정도(2007)에서는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에서 '-던'을 제외하였지만 오민석(2015)에서는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은, -는, -을, -던'을 취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았을/였을, -던, -았던/였던'을 취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⁶⁾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던'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과 함께 결합되어 '-있던'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실제 한국어에서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형형 어미 '-던'에 대한 용례들을 구어 말뭉치 외에 구글, 네이버 등을 검색해 본 결과 관형형 어미 '-던'이 단독으로 쓰인 용례는 거의 없었고 본 논문의 용례 또한 한정된 자료의 결과이기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실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⁷⁾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보면 관형형 어미 '-던, -있던/있던'은 현대의 현실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았지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가 있었다. 특히 의존 명사 '줄' 선행하는 어간으로 '동사'가 가장 많았고 '동사'를 제외하고 '-이다'와 결합한 용례도 많았다.⁸⁾

6) 황혼(2022)에서 과거, 완료를 의미하는 '-었-'과 과거, 미완료를 의미하는 '-던'이 결합한 '-있던' 통합체는 '완료된 후의 지속 상태의 중단, 반복성 지속의 완료, 완료, 진행성 지속의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던'은 '-었-'과 결합하면서 시제로 과거이며 상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의 속성에 따라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숙영(2009)에서 내포문의 시제 현상을 연구하면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있던'은 과거형 관형사형, '-던'은 과거 비완결상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도 '-있던'은 '-던'과 비교하여 완료, 미완료 등의 의미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던'과 '-있던'을 분류하였다. 특히 현실 언어생활에서 의존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어미로 '-던'보다는 '-있던'이 자연스럽게 쓰이므로 용례를 분류하였다.

7) 관형형 어미 '-던'에 관한 용례이다.
그는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자기를 사모하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일엽, 유진원, 신영자 연구, 푸른사상, 2006)

8)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관형형 '어떤'이 선행할 때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가 있었다. 이때 '줄'은 서술어로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는 구어말뭉치에 없었다. '줄'과 결합하는 조사는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이나'가 있었다. 관형형 '이런, 그런, 이럴, 그릴'이 선행하는 '줄'은 서술어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등의 인지동사는 모두 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형형 어미 '이런, 그런, 이럴'을 선행할 때 의존 명사 '줄'이 조사 '도, 은'과 결합할 경우 서술어 '모르다'가 후행하였다.

- a. 여기 와서 정아방까지 있는 거 보고..니 결심이 어떤 줄 알겠드라.
(노희경, 고독, 2002)
- b. 인정이 어떤 줄을 다 알고 나면 소를 말이라고 하거나 콩을 팔이라고 하거나 그저 말하는 대로 따라 머리만 끄덕이고 싶어진다.
(조지훈, 지훈전집9, 나남출판사, 1997)
- c. 당신 기태 얼굴이 어떤 줄이나 알아요?
(조명주, 안녕 내사랑, 1999)
- d. 이런 줄도 모르고 오빠 상금타면 언니 바다 데려가겠다고 얼마나 들떴었는데.
(강건향, 도레미파솔라시도, 2008)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조사가 없는 ‘줄’ 단독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는 용례가 많았다. 의존 명사 ‘줄’은 다양한 보조사를 결합하는데 목적격 조사 ‘을, 부사격 조사 ‘로’외에 보조사 ‘은, 만, 도, 들, 이야, 이나’와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형 ‘로만’을 취하였다.

선행 연구를 보면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논의하였다. 오경숙(2009)에서는 ‘관형형+줄(을, 로) 알다/모르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격조사 ‘을’은 사실성, 격조사 ‘로’를 반사실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오민석(2015)에서는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전형적인 구성이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하며 내포문 명제의 인지여부를 따지는 ‘사실성’을 의미한다면 비전형적 구성의 ‘줄’은 부사격 조사 ‘로’를 취하여 내포문 명제의 진위여부를 의미하여 ‘반사실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 ‘알다, 모르다’에 의해 의존 명사 ‘줄’이 취하는 조사는 달라지지만 ‘사고’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밥을 먹는(-은, -을, -던)] 줄 알다/모르다’일 경우 화자 또는 주어가 사고 과정을 통해 ‘밥을 먹는(먹은, 먹을, 먹던)’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에 의해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의 ‘사고’라는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는 인지동사이며 ‘알다’의 용례가 ‘모르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사고’의 의미를 가진 인지 동사 ‘생각하다, 믿다, 예상하다.’등의 다양한 서술어가 후행하였다.

3.1. 선행하는 관형형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았을/였을, -던, -았던/있던’의 용례가 모두 있어서 관형형 어미의 제약이 없었다. 관형형 어미 ‘-을’의 용례가 많은 것에 비해 과거회상, 미완료의 의미를 가진 관형형 어미 ‘-던’은 용례가 드물었고 ‘-있던’은 5개의 용례만 있었다.⁹⁾ 사전에 제시된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의 문형정보를 보면 ‘-은, -는, -을’만 용례로 제시하였고 관형형 어미 ‘-던’이 제외되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는/(으)ㄴ/(으)ㄹ 줄 알다/모르다’로 관형형 어미 ‘-던’은 제시되지 않았다.

e.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개인이한테도 못했던 얘기 다 털어놓고 그랬는데?
(이세인·김희주, 개인의 취향, 2010)

f. 양순이 개 별난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이희명, 명랑소녀 성공기, 2002)

9) 오민석(2015:92)에서 일상어에서 수정된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관형형 어미 ‘-던’의 쓰임에 제약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 구어말뭉치의 용례를 찾아본 결과 관형형 어미 ‘-던’의 용례는 과거형 어미 ‘-았-’이 결합된 ‘-있던’ 형태만 있어 웹사이트에서 용례를 찾았다. 웹사이트에도 ‘-있던’이나 ‘-던’의 용례가 극히 드물어 현실 언어 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형태였다.

a. 공부를 잘 {할, 한, 하는, 하던} 줄은 알았지만 전교 1등{일, 인, 이었던} 줄은 몰랐네.
(오민석, 2015:92)

b. 그는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자기를 사모하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일엽, 신영자 연구, 유진원, 2006, 푸른사상)

최정도(2007)에서도 의존 명사 ‘줄’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관형사형 어미 ‘-을’과 결합하여 ‘을 줄’ 구성을 이룬다고 하였다.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과 결합할 수 있지만 관형형 어미 중 ‘-던’이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전형적 구성의 ‘줄2’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실, 진행되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라는 해석으로 본다면 충분히 취할 수 있어 일상어에서의 용례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관형형 어미 ‘-던’의 용례를 구어 말뭉치를 토대로 찾아보았지만 용례가 없었고 드물지만 웹문서에서 용례가 있던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는 않는 형태이지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선행요소로의 제약 사항은 아니었다.

선행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가 있었는데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선행 어간의 제약은 없었다. ‘동사, 형용사’가 대부분이었고 ‘있다, -이다’도 그 용례가 있었지만 ‘없다, 아니다’의 용례는 많지 않았다.

이하에서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와 선행 어간의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3.1.1. 관형형 어미 ‘-은’

관형형 어미 ‘-은’은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나 완료의 지속을 의미하며 형용사와 결합하면 현재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낸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관형형 어미 ‘-은’은 어간으로 동사와 형용사와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었으나 ‘있다’의 경우 한국어 구어 말뭉치에 ‘있는 줄 알다’ 3개의 용례가 있었다. 선행 어간 ‘있다’에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하는 예는 특정 명사 ‘적, 뒤, 후, 다음, 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에 쓰인다. 의존 명사 ‘줄’ 앞에 쓰인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었다.¹⁰⁾

(4)

a. 나는 진짜로 방울새 목에 방울이 달린 줄 알았어.

(이창동, 오아시스, 2002)

b. 이 오빠가 하도 말이 없어서 얌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 내숭이었네.

(임순례, 와이키키브라더스, 2001)

c. 나는 뭐 숨는 게 좋아서 숨어 있는 줄 알아요?

(신동익·박선자, 메디컬센터, 2000)

d. 또 하루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여지나, 9회말 2아웃, 2007)

10) ‘있다’와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일 경우 3개의 용례가 있었고, ‘모르다’일 경우 1개의 용례가 있었다.

매국노가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그 자손에게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항의가 여러 차례 있는 줄 알지만 법은 끝내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원일, 삶의 걸 살림의 질, 세계사, 1993)

한국에서도 孔子가 있는 줄 알고 孔子를 성인으로 받들면서, 유교를 정통사상으로 삼게 되었다.

(조동일,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e. 그 추운 기차역에서 떨고 계셨으니 역에 도착해 주위를 살피는데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안낀 줄 알았습니다.

(여성시대 3,4부, 96-05-10, 전자전사자료, 김승현, 손숙, 대화자, 1996)

(4)는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과 결합하는 어간의 용례이다. (4a)는 동사 ‘달리다’와 쓰여서 이미 어떤 것이 행해졌다고 생각한 과거완료의 의미, (4b)는 형용사 ‘암전하다’와 결합하였고 (4c)는 ‘있다’와 결합, (4d)는 ‘이다’와 결합, (4e)는 ‘아니다’와 결합한 용례이다.

3.1.2. 관형형 어미 ‘-는’

관형형 어미 ‘-는’이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는 현재를 나타내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선행 어간으로 ‘있다, 없다’와 결합하였고, ‘-이다, 아니다’는 결합하지 않았다.

(5)

a. 단아 누가 들으면 증병이라도 없는 줄 알겠다.

(정지우, 가문의 영광, 2008)

b. 나는 뭐 좋은 기억 있는 줄 알아?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2007)

c. 남자들은 자기 누나나 엄마한테는 사생활이 없는 줄 알잖아, 이해해.

(이선희, 거침없는 사랑, 2002)

(5)은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인 경우의 용례이다. (5a)는 동사 ‘없다’와 결합, (5b)는 ‘있다’와 결합, (5c)에서는 ‘없다’와 결합한 용례이다.

3.1.3. 관형형 어미 ‘-을’

관형형 어미 ‘-을’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측, 의지, 미실현’을 의미한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하는 용례가 가장 많았다.

(6)

a. 평생 시골 촌구석 순경으로 써을 줄 알았더니..

(이경희, 폭지, 2000)

b. 제일 오만한 것은 정당 참여인 만큼 투표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투표율이 저조했던 점입니다.

(조선일보 91년 인터뷰기사, 리차드 앨랜의 기자들, 조선일보사, 1991)

c. 그것이 마치 그들의 생활의 전체라고 억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안다.

(한국현대수필을 찾아서, 구인환 편, 한샘출판사, 1984)

- d. 죽은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
(정지우, 가문의 영광, 2008)
- e. 내가 뭐 영원히 동해씨 상사일 줄 알아?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2010)
- f. 세상 남자 다 바람 나도 삼촌은 아닐 줄 알았어요.
(최현경, 이웃집 웬수, 2010)

(6)은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을’과 결합하는 어간 용례이다. (6a)는 동사 ‘씩다’와 결합, (6b)는 형용사 ‘높다’와 결합, (6c)는 ‘있다’와 결합, (6d)는 ‘없다’와 결합, (6e)는 ‘-이다’와 결합, (6f)는 ‘아니다’와 결합한 용례이다. 관형형 어미 ‘-을’과 결합하는 어간도 다양하게 있었다.

3.1.4.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

관형형 어미 ‘-을’에 과거형 어미 ‘-았/었’을 결합한 형태이다. 문숙영(2009)에서 관형절에서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 또는 과거 상황이 가상적임을 나타낼 때 ‘-었을’이 쓰인다고 하였다.

(7)

- a. 나 만수형은 열번쯤 받았을 줄 알았어.
(송지나, 카이스트 47, 1999년에 묻다, 1999)
- b. 이런 이들은 일정 삼십육 년 동안에 맞았을 줄 안다
(서정주, 미당 자서전, 민음사, 1994)
- c. 그래, 너는 내가 속으루 잘한다 잘한다 그러구 있었을 줄 알았니?
(최윤정, 황금마차, 2002)
- d. 議會民主主義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었을 줄로 안다.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편집부, 한국일보사, 1988)

(7)은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았을/었을’과 결합하는 어간 용례이다. (7a)는 동사 ‘받다’와 결합, (7b)는 형용사 ‘맞다’와 결합, (7c)는 ‘있다’와 결합, (7d)의 ‘없다’의 용례는 드물게 있었다.

3.1.5. 관형형 어미 ‘-었던/았던’

관형형 어미 ‘-던’은 과거회상, 미완료를 의미한다. ‘관형형 줄 알-’ 구문의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었던’의 용례가 구어 말뭉치에 있고, 웹사이트에서 드물지만 관형형 어미 ‘-던’의 용례가 있는 것을 보면 관형형 어미 ‘-던’은 제약이 있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한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형태임은 분명해 보였다.¹¹⁾ 한국

11)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던’에 관한 본문의 용례는 한정된 자료에서의 결과이기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

어 사전이나 한국어 교재에서는 관형형 어미 ‘-던’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관형형 어미 ‘-던’의 쓰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정훈(2006)에서 의존 명사 ‘줄’의 계량적 연구를 하면서 관형절에 ‘-더-’가 ‘-었-’ 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던’이 언제 허용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정도(2007)에서는 관형형 어미 ‘-던’의 제약으로 의존 명사 ‘줄’을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전형적 구성의 사실을 의미하는 ‘줄2’ 구성은 이미 일어난 사실, 지금 진행되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던’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용례를 찾은 결과 관형형 어미 ‘-던’이 결합하여 쓰이는 하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주로 ‘-있던’의 형태로 쓰였다. 다음의 용례에서 관형형 어미 ‘-던’과 ‘-있던/있던’의 쓰임을 알아보자.

(8)

a. 오빠 왔는 줄 알았지. (왔던 줄 다 안다는 듯 피식-거린다.)

(신한솔·민동현, 싸움의기술, 2006)

a'. ?오빠 왔는 줄 알았지. (오던 줄 다 안다는 듯 피식-거린다.)

b. (궁시령) 자기 별명은 뭐, 썩 훌륭했던 줄 아나.....

(박은령, 두번째 프로포즈, 2004)

b' (궁시령) 자기 별명은 뭐, 썩 훌륭하던 줄 아나...

c. 나라구 침부터 용빼는 재주 있었던 줄 아니?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2010)

c' 나라구 침부터 용빼는 재주 있던 줄 아니?

(8)에서 ‘관형형 줄 알-’ 구문의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있던’과 결합하는 어간 용례이다. (8a, a')는 동사 ‘오다’와 결합한 용례인데, 구어말뭉치에는 (8a)와 같은 형태로 선행하지만 (a') ‘오던 줄 다 안다는 듯’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선행 문장 ‘왔는 줄 알았지’와 연결하면 어색했다.¹²⁾ (8b, b')는 형용사 ‘훌륭하다’와 결합한 용례인데, 형용사 어간도 ‘-던, -있던’형태 모두가 자연스러웠다. (8c, c')는 어간으로 ‘있다’가 관형형 어미 ‘-던, -있던’과 결합할 수 있었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로 ‘-던’ 또는 ‘-있던’이 잘 쓰이지 않으며 실제 한국어에서 쓰이더라도 ‘-있던’의 형태가 주로 쓰이기에 기존 연구에서 관형형 어미 ‘-던’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도 보았던 것이다.

는 형태인 것은 분명하며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던’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과거지세언어말어미 ‘-었-’과 결합한 형태인 ‘-있던’이 실제 한국어에서 잘 쓰이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자기를 사모하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일엽, 유진원, 신영자 연구, 푸른사상, 2006)

12) ‘오던 줄 다 안다는 듯’의 문장을 단독으로 보면 어색하지 않았지만 아래의 용례처럼 선행 문장으로 ‘왔는 줄 알았지’와 함께 쓰이면 어색하였다.

?오빠 왔는 줄 알았지. (오던 줄 다 안다는 듯 피식-거린다.)

3.2. 결합하는 조사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는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형태의 용례가 많았다. 하지만 목적격 조사 ‘을’ 외에도 부사격 조사 ‘로’나 다양한 보조사와도 결합하였다. 이에 의존 명사 ‘줄’은 목적격 조사 ‘을’ 외에도 다양한 보조사 ‘은, 만, 도, 들, 이야, 이나’ 등을 취하였다.¹³⁾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에 따라 결합하는 조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부사격 조사 ‘로’,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형태인 ‘로만’, 보조사 ‘이나’와 결합하면 서술어로 ‘알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만 후행하였고,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는 없었다. 이런 현상을 논의한 선행 연구로는 우형식(1995), 오경숙(2009), 정연주(2016) 등이 있다. 먼저, 우형식(1995)에서 의존 명사 ‘줄’이 사실의 의미를 가질 때 격조사 ‘를’을 화자나 주어가 사실 여부를 떠나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 격조사 ‘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의존 명사 ‘줄’에 격조사 ‘로’가 결합하면 상위문의 서술어는 ‘알다’만 후행한다고 하였다. 오경숙(2009)에서 ‘줄 알다’와 ‘줄 모르다’의 의미 대립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줄 알다’가 반사실성과 사실성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중의적 의미의 차이를 결합 형식상으로 보면 조사에 의한 것이다. 의존 명사 ‘줄’ 뒤에 목적격조사 ‘-을’이 오면 사실성, 격조사 ‘-로’가 오면 반사실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줄 모르다’는 사실성 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연주(2016)에서 중세, 근대, 현대의 ‘줄’을 논의하면서 조사 ‘-을’은 사실의 인지/사유내용, ‘-로’는 비사실의 인지/사유내용이라고 하면서 현대에 오면서 조사 ‘로’가 결합한 ‘줄’이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의존 명사 ‘줄’을 ‘의미, 선행행 요소’ 등에 따라 분류하여 전형적 구성과 비전형적 구성으로 나누었다. 전형적 구성은 ‘방법, 사실’을 의미하는데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 모르다’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비전형적인 구성에서 ‘Vending 줄로 알다’는 후행하는 서술어 ‘알다’만 올 수 있다고 하였다. 구성에 따른 특징은 조사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의존 명사 ‘줄’이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하면 전형적 구성으로 내포문 명제의 인지여부를 따지고 부사격조사 ‘로’를 취하면 비전형적 구성으로 내포문 명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격조사 ‘로’와 결합하면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와 ‘생각하다, 여기다’ 등의 인지 동사가 오지만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어 말뭉치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부사격 조사 ‘로’ 뿐만 아니라 조사 ‘만’, ‘이나’와 조사의 결합 형태인 ‘로만’ 역시 서술어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가 ‘을’ 또는 ‘로’에 의해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관형형 줄 알-’ 구문이 가진 ‘사고’의 의미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부사격조사 ‘로’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¹⁴⁾

13) 이익섭·채완(1999)에서 특수조사 중 ‘-은/는, 도’는 격조사를 반드시 탈락시키기도하고 ‘만’은 격조사와 잘 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14)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의 의존 명사 ‘줄’은 결합하는 조사에 의해 ‘사고’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아래의 용례에서 보면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가 없거나 목적격 조사 ‘을’, 또는 부사격 조사 ‘로’를 취하더라도 ‘옥금이(내가 시골로 내려간 것)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3.2.1. 목적격 조사 ‘을’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목적격조사 ‘을’과 결합하는 용례가 많았다.

(9)

a. 판데 안가고 와서 팔아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냐~!

(문희정, 그대 웃어요, 2009)

b. 사고가 난 뒤, 하룻밤을 지나고야 문힌 사람이 있는 줄을 알았다니, 허술하기 그지 없다.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편집부, 한국일보사, 1982)

c. 남자가 잘해주면 말이야, 잘해주는 줄 알고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지, 지안이랑 내 말에 말끝마다 기어오르고...

(노희경, 굿바이 솔로, 2006)

(9)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격조사 ‘을’이 결합한 용례이다. (9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 (9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 (9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이다.¹⁵⁾

3.2.2. 부사격 조사 ‘로’

의존 명사 ‘줄’이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한 것으로 부사격조사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로 ‘변화, 원인, 도구, 생각’ 등의 다양한 의미로 체언에 붙어서 사용된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 ‘로’는 주로 인지나 지각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어떤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부사격 조사 ‘로’는 조사 자체의 의미가 어떤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낸다는 의미인데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정형인 ‘모르다’와 결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사격조사 ‘로’와 결합한 의존 명사 ‘줄’은 서술어가 ‘알다, 생각하다’ 등만 후행하고 ‘모르다’를 후행하지 않았다. 오민석(2015)에서는 이렇게 후행하는 서술어 중에 하나만을

옥금인 분명히 제가 시골로 내려간 줄[로, 을, 로] 알고 있거든요.

(구현숙, 열아홉 순정, 2006)

15)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는 많았다. 하지만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가 ‘-을’ 또는 ‘-었을/았을’일 경우에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가 많았다. 서술어 ‘모르다’가 아니더라도 ‘누가 알았겠어?’ 또는 ‘생각하지 못하다’로 형태적으로는 ‘관형형 줄 알-’구문의 서술어 ‘알다, 생각하다’를 취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모르다’로 해석할 수 있었다. 문장의 형태는 수사의문문으로 실현되었다.

a. 평생 공부하고 일밖에 모르고 산 김민철이가, 윤영이한테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덜 줄을 정말 누가 알았겠어?

(노희경, 그들이 사는 세상, 2008)

b. 원호가 너 술 안 먹더라는 얘기는 하더라만, 아주 끓었을 줄을 생각 못했는데, 정말 아주 끓었던 말야?

(안재성, 어느 화가의 승천, 새길, 1992)

취하는 구성을 비전형적 구성이라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목적격조사 ‘을’과 결합한 의존 명사 ‘줄’ 구성은 내포문 명제가 사실을 의미하고 부사격조사 ‘로’가 결합하면 내포문 명제는 거짓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격조사 ‘을’이나 ‘로’의 결합에 따른 의미가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사고’의 의미가 변하지 않기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격조사 ‘로’가 결합하여 쓰일 때 서술어는 ‘알다, 생각하다, 착각하다, 상상하다’ 등은 후행하지만 서술어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10)

a. 유정이나 순정이한테 말씀 다 들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정, 황금마차, 2002)

b.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빠가 날 피하는 줄로 알고...무섭고 떨려서...

(구현숙, 열아홉순정, 2006)

c.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파트 경비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할 사람은 내 딸 중에 없을 줄로 안다.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2006)

d.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 커플이 폐쇄된 공간에서 밤새 갇혀 있는 장면들을 종종 보셨을 줄로 압니다.

(김정아, 건빵 선생과 별사탕, 2005)

(10)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격조사 ‘로’와 결합할 때 후행하는 서술어는 ‘알다’만 있다. (10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격조사 ‘로’와 결합한 용례, (10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격조사 ‘로’와 결합한 용례, (10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격조사 ‘로’와 결합한 용례, (10d)는 관형형 어미 ‘-었을’이 선행하는 의존 명사 ‘줄’에 격조사 ‘로’가 결합하는 용례이다.

3.2.3. 조사의 결합형 ‘로만’

부사격 조사 ‘로’에 한정, 강조를 나타내는 의미의 보조사 ‘만’이 결합한 ‘로만’이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하였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 ‘로’ 단독형 또는 보조사 ‘만’이 결합한 ‘로만’ 형태에서도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만 취하고 ‘모르다’는 취하지 않았다.

이은섭(1996)에서 ‘로만’의 의미 속성을 세분화 시켜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성]의 자질이 있고 상태에 대한 규정으로 [+결정성]의 자질이 있다고 하였다. ‘안다’가 쓰이는 경우 대상, 개념이 한정된 상태일 때에 의미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장이 된다고 하였다. ‘모르다’가 있는 문장일 때 비문인 이유는 문맥적으로 사유 주체가 보조사 ‘로만’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실을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조사에 의해 문법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보조사가 문법성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사격 조사 ‘로’,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형 ‘로만’이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면 서술어로 긍정형인 ‘알다’만 후행하고 부정형인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는다. 이 형태에서는 서술어 ‘알다’ 이외의 ‘생각하다, 상상하다, 예측하다’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인지 동사가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 ‘생각하지 못하다, 상상하지 못하다, 예측하지 못하다’처럼 ‘모르다’의 의미만 가지더라도 서술어로 후행하지 않았다.

(11)

a. 그냥 날 괴롭히는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고, 그쪽 목숨 걸어보겠냐구...그랬어, 내가.
(정지우, 가문의 영광, 2008)

b. 이 집에서 쫓겨날 땐 내 인생 그대로 종 치는 줄로만 알았는데,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는 거 같다.

(노희경, 화려한 시절, 2001)

c. 바보같이...그 순간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 다시 만나고 싶다, 혜수야...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2006)

(11)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조사 ‘로만’과 결합한 용례로 후행하는 서술어는 ‘알다’만 있다. (11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조사 ‘로만’과 결합한 용례, (11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조사 ‘로만’과 결합한 용례, (11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조사 ‘로만’과 결합한 용례이다.

3.2.4. 보조사 ‘만’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한정,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 ‘만’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서술어는 ‘알다’만 후행하였고, 다른 인지동사 ‘생각하다, 여기다, 예측하다’ 등이나 부정형인 ‘모르다’를 서술어로 후행하는 용례는 없었다.

(12)

a. 멍청한 푼수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 계산에도 밝은 애구나 하고 생각했어.
(이재순, 도영명 외, 궁, 2007)

b. 난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하는 줄만 알았다.
(오수연, 네 자매 이야기, 2001)

c.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기분은 여전히 복잡하고 묘하다.
(박혜영 외, 올드미스다이러리, 2004)

(12)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만’과 결합한 용례로 후행하는 서술어는 ‘알다’만 있다. (12a)는 관형형 어미 ‘-은’을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만’과 결합, (12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만’과 결합한 용례, (12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만’과 결합한 용례이다.

3.2.5. 보조사 ‘은’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인데 서술어로 ‘알다’를 취할 때 보다 ‘모르다’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술어 ‘알다,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를 제외하고 다른 인지동사 ‘생각하다, 여기다’ 등이 후행할 때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였다.¹⁶⁾

(13)

a. 너 이려고 있는 거 나 가슴 아픈 건 줄은 알았어?

(박정란, 노란손수건, 2003)

b. 진작부터 애리씨가 나한테 관심있는 줄은 알았지만..

(문영남, 애정의 조건, 2004)

c. 어떻게 왔니...을 줄은 알았지만..홍인기가 내려준 임무야, 아니면 니 용건이야?..

(정성주, 변호사들, 2005)

d. 그게 그런 식으로 쓰일 줄은 짐작도 못했대구요.

(노지설, 닥터챔프, 2010)

(13)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13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 (13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 (13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이다. (13d)는 의존 명사 ‘줄’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용례인데 서술어로 ‘알다, 모르다’를 제외한 인지동사가 후행할 때 부정 표현과 함께 쓰였다.

3.2.6. 보조사 ‘도’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더함, 허용, 양보, 강조’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보조사 ‘도’와 결합하였다. 보조사 ‘은’과 마찬가지로 보조사 ‘도’도 서술어로 ‘알다’ 보다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의 서술어로 후행하는 용례가 훨씬 많았다.

‘관형형 줄 알-’ 구문의 의존 명사 ‘줄’에 관형형 어미 ‘-은/는’이 선행하는 용례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고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경우 구문의 의미가 ‘방법, 능력’이었고 ‘사고’를 의미하는 용례는 구어 말뭉치에는 없었다.¹⁷⁾

16) 의존 명사 ‘줄’에 보조사 ‘은’이 결합할 때 후행하는 서술어에 부정표현을 포함한 형태였는데 ‘생각하지(상상하다, 꿈에도 생각하다, 예상밖이다, 예상하다, 짐작하다) 못하다’ 등으로 실현되었다.

노철중이가 노판식이 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형수, 드림, 2009)

17) 구어 말뭉치 용례에서 ‘관형형 줄 알-’ 구문의 의존 명사 ‘줄’이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고 보조사 ‘도’를 취하는 경우 ‘사고’가 아닌 ‘방법, 능력’의 의미를 가지지만 시대극(고전극)에서는 ‘사고’의 의미를 가진 용례도 있었다.

기생: 그걸 안다면, 네 죽을 줄도 알겠구나!

(이한호, MBC 베스트극장 300화-전등사, 1998)

(14)

a. 야, 니가 불행한 가정에서 살아봤으니까, 가정이 소중한 줄도 아는 거지, 안그러면 너처럼 젊은 나이에 그런 거 모른다?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2004)

b. 그럼 왜 먹어야 되는 줄도 알겠네.

(소형경, 그여자, 2005)

(14)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14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한 용례, (14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한 용례이다.

3.2.7. 보조사 ‘들’

보조사 ‘들’은 문장 내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상위문의 청자가 여러 명일 것이라 예상하고 쓰는 복수 표지의 조사이다.¹⁸⁾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들’과 결합한 형태의 용례는 드물게 나타났다.

(15)

a. 무조건 보약이면 좋은 줄들 알어요, 큰일나 잘못 먹으면.

(임성한, 보고 또 보고, 1998)

b. 난 니 나이 땐, 스물 한두살 대학생으 봤구 사람들, ..서른 넘어선 애 둘 낳았는데두 뻑하면 처년 줄들 알았어,

(임성한, 온달 왕자들, 2000)

c. 우리나라 그냥 무조건 스물 몇살만 되면 짝 채워서 남자 여자 살아야만 되는 줄들 알아, 그렇지 않음 다 비정상 취급야.

(임성한, 온달 왕자들, 2000)

(15)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¹⁹⁾ (15a, b)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들’과 결합한 용례, (15c)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들’과 결합한 용례이다.

3.2.8. 보조사 ‘이야’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강조의 의미가 있는 보조사 ‘이야’가 결합한 것으로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하는 용례가 가장 많았고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18) ‘들’이 접사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고 결합의 제약이 있으며 통사 범주를 바꾸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들’은 복수표지를 의미하는 보조사라고 보았다.

19)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용례는 퓨전 사극이라 불리는 드라마에 1개의 용례가 있었다. 부끄러운 줄들을 알아라!!

(김태희, 성균관 스캔들, 2010)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는 대부분 ‘(누가) 알았겠어, 알았겠는가, 꿈에도 몰랐어,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짐작이나했겠어. 상상했으랴!’ 등으로 수사 의문문 형태로 나타나며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²⁰⁾

(16)

a.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 물론 질투 섞인 비방인 줄이야 알았지만, 그래두 이지은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유진, 불새, 2004)

b. 공부 잘하는 줄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영어까지 잘 할 줄이야....정말 사람이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김은희·윤은경, 낭랑 18세, 2004)

c. 거기서 정말 뜻밖의 길을 찾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태준 외 13인, 달빛에 길을 물어, 한국경제신문사, 1995)

(16)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서술어가 ‘알았지만, 알았겠는가’등이 후행하면서 ‘의외성, 강조’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16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용례로 후행하는 서술어 ‘알다’가 연결 어미인 ‘-지만’과 결합하여 앞의 내용을 시인하면서 반대되는 조건을 붙이는 형태의 용례이다. (16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용례. (16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용례로 수사의문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을 줄이야’의 문장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였다.

3.2.9. 보조사 ‘이나’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이나’와 결합할 때 후행하는 서술어는 ‘알다’가 있었고 ‘모르다’의 용례는 없었다. 이 구성에서 관형형 어미 ‘-은, -는’을 선행할 때 의존 명사 ‘줄’이 ‘사고’의 의미였고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할 때는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의 용례만 있었다. 여기서의 문장 형식은 대부분 명령문이나 의문문이었다.

(17)

a. 당신은 시아버지 잘 둔 줄이나 알려!

(문희정, 그대 웃어요, 2009)

b. 날 키워준 니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 니꼴 보고 사는 줄이나 알려!

(진수완, 형수님은 열아홉, 2004)

c.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대체 몇 명이 희생 된 줄이나 알아?

(이유진, 못된사랑, 2007)

20) 권선영(2008)에서 ‘줄이야’는 서술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모르다’만 후행하고 서술어 ‘알다’를 후행할 때는 수사의문문 형태일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찾아본 결과 서술어로 ‘알다’도 후행했고 수사의문문 형태가 아닌 용례도 있었다.

(17)에서 의존 명사 ‘줄’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면 서술어로 ‘알다’만 후행한다. (17a)는 관형형 어미 ‘-은’을 선행하는 의존 명사 ‘줄’에 조사 ‘이나’가 결합, (17b)는 관형형 어미 ‘-는’을 선행하는 의존 명사 ‘줄’에 조사 ‘이나’가 결합한 용례이다. (17a~c)는 문장 형식이 명령문이나 의문문으로 된 용례가 많았다.

3.3. 후행하는 서술어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가 대부분이나 인지 동사 ‘느끼다, 생각하다, 착각하다’ 등이 서술어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였다.²¹⁾ 중세국어 의존 명사 ‘줄’을 연구한 정혜선(2018:238)에서 후행하는 동사의 유형은 ‘인지동사, 사유동사, 발화동사, 감각동사, 심리동사, 존재동사, 부정동사’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존 명사 ‘줄’의 역사적 변화를 논의한 정연주(2016:84)에서 의존 명사 ‘줄’과 공기하는 동사 유형과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알다, 모르다’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로 사유동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에 오면서 ‘알다, 모르다’와 공기 관계가 뚜렷하여 의존 명사 ‘줄’이 ‘인지/사유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우형식(1995:30)에서 의존 명사 ‘줄’이 있는 구문의 상위문에 인지동사가 서술어로 제약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오민석(2015:102)에서는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 알았다, 알겠다’에 의해서도 ‘명제의 부정, 재확인, 강한 믿음’등의 의미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하신영(2019:137)에서 ‘-는 줄로 알다’라는 문형에 자체를 논의하였다. ‘알다’가 ‘알았다’로 쓰이면 기대나 예측이 틀렸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공기하는 서술어를 구어 말뭉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알다’가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생각하다, 여기다, 짐작하다’ 등의 인지동사를 후행하였다.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인지동사들은 부정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했는데 그 용례는 ‘못 느끼다, 예측 못하다, 계산 못하다, 생각 못하다’ 등과 같다. 인지동사 ‘알다’를 부정할 때는 형태적으로 부정 어휘 대립쌍 ‘모르다’를 쓰거나 ‘알지 못하다’로 ‘알다’에 부정 표현을 같이 쓰는 방법이 있다. 또는 수사의문문 형태로 ‘알다’를 의미적으로

21)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로 ‘아리오, 아뢰옵니다, 있으랴’도 있었는데 역사 드라마나 고전을 배경으로 한 대화에서만 보이는 용례여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줄이 있으랴.’의 경우 오늘날에도 쓰이는데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변할) 줄이 있으랴.’는 문장을 그대로의 형태로 인용하였다.

a. 하오나 전하, 아직은 때가 아닌 줄로 아뢰옵니다. (이재운 외, 탐나는 도나, 2009)

b. 폐하께서...신공으로 납시어 신녀들의 노고를 위로 해주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최완규·정형수, 주몽, 2006)

c. 구어말뭉치 : 동(冬)셋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모리 마즌들 풀닐 줄이 이시랴 (진경환·우승순 외,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1993)

d. 신문제목 : 춘향이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경향신문, 이호승기자, 2003.07.03.)

e. 노래가사 : 이 생애 살아서 못 만난 들 어머리/달 비치던 푸른 강가엔 빼기풀이 옷자라고/구름 뒤에 어슴푸레하게 숨은 내 임의 얼굴이/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심규선, 야래향(夜來香), 2020)

부정하는 방법도 있다. 임흥빈(1987)에서 ‘모르다’를 ‘못 알다’와 같이 환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의 가치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부정 표현에 의한 인지동사의 부정은 ‘알다’와 ‘모르다’처럼 부정 어휘 대립쌍도 아니며 환언되더라도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며 수사의문문은 ‘모르다’가 없는 형태였다. 그래서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는 ‘알다’ 이외의 다른 인지 동사가 서술어로 후행하지만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모르다’ 이외의 다른 서술어가 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 ‘알다, 생각하다, 짐작하다’ 등이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 ‘알지 못하다, 생각하지 못하다, 짐작하지 못하다’로 ‘모르다’의 의미를 가질 때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 중 부사격 조사 ‘로’, 보조사 ‘만, 이나’,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형태인 ‘로만’과 공기하지 않았다.

(18)

a. 이때 만일 이 삼엽층에 이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영원의 왕자가 될 줄로 자인하였을 것이다.

(함석헌, 역사와 민족, 한길사, 1983)

b. (그제야 헤리 일인 줄 느끼는) 설마 또 사고 쳤어요?

(소현경, 검사 프린세스, 2010)

c. 철없는 회장님 막내따님인 줄로만 생각했는데...의외로 속이 깊네.

(구현숙, 열아홉순정, 2006)

d. 첫회 나갔을 때 이미 관계 기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중도에 질릴 줄 예상했어요.

(이덕선의 기자들, 조선일보 93년 인터뷰기사, 조선일보사, 1993)

e. 메모는 있을 줄 짐작했지만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

(박정란, 노란손수건, 2003)

f. 그자는 안에 들어와서 사람 대접이나 받는 줄 여기는 모양이었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1980)

g. 불쌍한 두준이 자식..지 간호하는 줄 철썩 같이 믿고, 감동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난리났는데,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

(박민정 외, 몽땅내사랑, 2010)

h. 강남 사는 사람들, 다 부잔 줄 오해하시는데 아니예요.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2007)

i. 엄마가 아픈 줄 걱정하는 미령에게 한 순의 임신사실을 통고하고 미령은 기절할 것 같은 기분으로 한순을 바라본다.

(박정란, 노란손수건, 2003)

j. 안성택, 동규인 줄 눈치 채고...

(박영숙, 헬로애기씨, 2007)

k. 나는 이제까지는 배추를 녹황색 채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천규석, 이 땅덩이와 밥상, 창작과 비평사, 1993)

l. 지금의 사태처럼 해체가 급속히 이루어질 줄은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웠다.

(리처드 앨랜의 기자들, 조선일보 91년 인터뷰기사, 조선일보사, 1991)

m. 아르바이트 면접 보기로 했는데 오늘인 줄 깜빡했어!!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2006)

o. 그가 가까이했던 많은 학자와 문인들의 안부를 묻노라고 해가 이미 기우는 줄도 있고 있었다.

(서정주, 미당 자서전, 민음사, 1994)

p. 엄마가 이런 모습일 줄 상상이나 했겠어?

(권혜원, 인어공주, 2004)

q. 꾸밀 줄 누가 감히 예언할 수 있었겠는가.

(김원일, 삶의결 살림의 질, 세계사, 1993)

r. 누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이나 꿰어요?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2006)

s. 무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하면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줄을 깨달을 수 있을까?

(김유정, 두포존, 한림대학 출판부, 1987)

t. 애 낳구 나면 내가 돌아설 줄 기대하지?

(김정수, 그대 그리고 나, 1997)

u. 이토록 큰 기후계나 생태계의 변화를 몰아올 줄 미처 예측 못했을 것이다.

(이규태,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솔빛 미디어 조선, 1993)

v. 흥분해 식식거리며 선우 얼굴이 코 앞에 다가온 줄도 못 느낀다.

(구선경·이선영, 백설공주, 2004)

w.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될 줄은 계산 못했어

(이유진, 불새, 2004)

x. 형사가 됐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김지우, 마왕, 2007)

(18)에서는 서술어 ‘알다, 모르다’를 제외한 ‘관형형 줄 알다.’구문에 후행하는 인지동사 용례이다. 다양한 인지동사가 후행하면서 의존 명사 ‘줄’이 가진 ‘사고’라는 의미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18p~t)는 의존 명사 ‘줄’에 동사 ‘상상하다, 예언하다, 꿈꾸다, 깨달다’ 등이 평서형 문장뿐만 아니라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쓰였다. (18u~w)는 동사 ‘예측하다, 계산하다, 느끼다, 생각하다’가 부정 표현 ‘못’과 함께 쓰이는 용례이다. 인지동사 ‘생각하다, 예측하다’ 등에 부정 표현이 결합하여 ‘생각하지 못하다, 예측하지 못하다’ 등으로 쓰여 의미적으로 ‘모르다’이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관형형 줄 알-’ 구문이었다. 인지동사 ‘알다’는 부정 어휘 대립쌍으로 ‘모르다’를 가지지만 ‘생각하다, 예측하다’ 등의 인지동사는 부정 표현이 있어야 ‘생각하지 못하다, 예측 못하다’ 등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알다’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 대립쌍 ‘모르다’가 아니기에 ‘관형형 줄 모르-’구문의 다른 후행 서술어가 아닌 ‘관형형 줄 알-’ 구문의 후행 서술어로 분류하였다.²²⁾

22) 이은섭(1996)에서는 ‘아니, 못’의 구문을 서술어 수식 부정문, ‘아니다, 모르다, 없다’ 구문을 어휘적 부정 서술어 구성으로, ‘-지 않(아니)-/못하-/말-’구문을 보문 요구 부정 서술어 구성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장형·단형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표현으로 하였다.

4. ‘관형형 줄 모르-’ 구문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문장에서 사고의 기능을 할 때 선·후행 요소와 문법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경숙(2009)에서 ‘줄 알다’는 사실성과 반사실성의 의미가 있는데 ‘줄 모르다’를 ‘사실성’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줄 알다’의 이차적인 의미인 ‘사실성’과 ‘줄 모르다’의 의미가 대립한다고 하였다.²³⁾ 오민석(2015:105)에서는 전형적 구성의 ‘Vending 줄을 모르다.’에서는 ‘사실’을 의미하는 구성 외에 내포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부정’의 비전형적 ‘Vending 줄을 모르다’를 제시하면서 ‘ending줄이야’도 같은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김진희·김선혜(2012:109)에서 방법, 능력의 ‘줄’구문이 아닌 지속강조의 ‘모르다’를 다루었는데 ‘-을 줄을 모르다’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하신영(2019:137)에서는 사전을 기술하며 의존 명사 ‘줄’이 ‘사실’, ‘능력, 방법’의 의미로 파악하고 ‘사실’을 의미하는 ‘줄’의 문형을 ‘-은/는 줄 알다/모르다’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확장된 유형의 문형으로 ‘(이렇게) -을 줄 몰랐다’로 기대나 예측과 다른 놀라움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방위남(2021)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 줄 모르다’의 의미기능과 문법제약을 연구하였는데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 ‘모르다’의 의미기능이 ‘방법, 능력, 사실’이라는 기존의 논의에 ‘도리’라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 보다는 ‘모르다’의 용례가 매우 적었고 선행행 요소도 ‘알다’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은, -는, -을, -았을/었을, -던, -았던/었던’이 있었다. 관형형 어미 ‘-던’은 용례가 많지 않았을뿐더러 ‘모르다’에 선행하지 않았고 ‘-았던/었던’이 선행하는 용례가 1개 있었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는 있었지만 ‘아니다’는 구어말 문치에는 없었지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는 ‘을, 은, 도, 들, 들을, 이야’가 있는데 ‘관형형 줄 알-’에 비해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가 많지 않았고,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와는 다르게 ‘모르다’만 있었다.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 ‘알다’는 ‘경험과 지식을 알다’ 외의 ‘생각하다, 여기다, 예측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모르다’는 ‘알지 못하다’ 외의 다른 의미로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는 ‘모르다’만 있었다. 하지만 ‘알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등의 인지 동사들이 어휘 부정대립쌍을 쓰거나 부정 표현과 결합하거나 문장의 형태가 수사 의문문일 때 ‘모르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²⁴⁾ 이러한 형태들은 의미적으로는 ‘모르다’이지만 형태적으로

23) 오경숙(2009)에서 사실성의 ‘줄 모르다’는 발화시에 화자가 관형절의 의미가 참임을 인식하지만 사건의 주어는 관형절의 의미가 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성의 ‘줄 알다’는 ‘줄’에 선행하는 관형절은 참이고 발화시의 화자와 사건의 주어는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성의 ‘줄 모르다’와 의미적으로 대립한다고 하였다.

a. 사람들은 사진이가 유치원생인 줄 모른다.
b. 저는 오늘 새벽에 비가 온 줄 알아요.

(오경숙, 2009)

24) 인지동사에 부정표현이 결합하여 ‘모르다’의 의미를 가진 용례이다.

언니가 아저씨 대학 후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관형형 줄 알-’ 구문이었다.²⁵⁾ 그래서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의존 명사 ‘줄’을 수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 이외의 다른 인지동사 ‘알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이 후행하지 않는다고 분류하였다.

4.1. 선행하는 관형형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도 의존 명사 ‘줄’은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았을/있을, -던, -았던/있던’이 선행하였다. 관형형 어미 ‘-던’의 제약이 없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례에서는 관형형 어미 ‘-던’보다는 ‘-았던/있던’을 사용하였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의 용례가 있었다. 하지만 선행어간으로 ‘아니다’의 용례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현실 언어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이지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4.1.1. 관형형 어미 ‘-은’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이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완료를 의미하며 형용사와 결합하면 현재를 나타낸다. 관형형 어미 ‘-은’에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있었으나 ‘없다’는 ‘관형형 줄 알-’ 구문과 마찬가지로 그 용례가 구어 말뭉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

a. 제니가 이 정도로 눈치챈 줄 몰랐다.

(소현경, 검사프린세스, 2010)

b. 나도 내 손톱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이새인, 김희중, 개인의 취향, 2010)

c. 장미야, 그런 일 있을 줄두 모르구 미안하다.

(임성한, 온달왕자들, 2000)

d. 이렇게 예의 없는 애들인 줄 몰랐어.

(윤경아, 공부의 신, 2010)

e. 속한 것만이 속한 것 아닌 줄도 모르나 그것도 모르고 政治를 어떻게 하나.

(동아일보사 편집부, 동아일보 사설(60년대), 동아일보사, 1960)

(19)는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가 ‘모르다’일 경우의 용례이다. (19a)는 관형형 어미 ‘-은’이 동사 ‘눈치채다’와 결합, (19b)는 형용사 ‘예쁘다’와 결합, (19c)는 ‘있다’가 결합한

(김은희·윤은경, 낭랑 18세, 2004)

25) 형태적으로 ‘관형형 줄 알-’ 구문이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다’ 즉, ‘모르다’를 의미하는 용례이다.

그럼 어디 정신 빠진 놈이 나이 사십에 이러구 나타날 줄 꿈에서나 생각했겠냐?

(문희정, 내생애 마지막 스캔들, 2008)

용례이다.²⁶⁾ (19d)의 ‘-이다’와 결합하는 용례, (19e)는 ‘아니다’와 결합한 용례인데 60년대 사설에 1개가 있을 정도로 극히 드물게 결합하였다. 선행 어간 ‘아니다’의 용례는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다수 있었지만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드물게 있었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아니다’는 쓰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2. 관형형 어미 ‘-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관형형 어미 ‘-는’은 선행 어간으로 동사를 주로 취하여 현재를 의미하였다. 구어 말뭉치에 선행 어간으로 ‘동사, 있다, 없다’를 취하는 용례는 있었지만 ‘형용사’를 취하는 용례는 없었다. ‘-이다’와 ‘아니다’는 관형형 어미 ‘-는’과는 결합하지 않았다.

(20)

a. 애한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진짜 몰랐다.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2007)

b. 이렇게 내 딸 옆에 스며들어와 있는 줄 몰랐던 나한테 화가 나서 그래.

(소현경, 검사 프린세스, 2010)

c. 나도 내 마음 중에 단 한 조각, 내 것으로 남아 있는 마음이 없는 줄 나도 몰랐어.

(오수연, 러브레터, 2003)

(20)는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모르다’인 경우의 용례이다. (20a)는 동사 ‘들어가다’와 결합, (20b)는 ‘있다’와 결합, (20c)에서는 ‘없다’와 결합한 용례이다.

4.1.3. 관형형 어미 ‘-을’

관형형 어미 ‘-을’은 동사와 쓰여 ‘추측, 의지, 미실현’을 의미하고 형용사와는 제한적으로 결합한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다른 관형형 어미보다 결합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용례가 있었다.

(21)

a. 눈물이 그렇게져 웃는다.....이런 질문 다시는 기서에게 들을 줄 몰랐다.

(이경희, 고맙습니다, 2007)

b. 바로 옆 부대였던 2대대 김춘식 일병입니다 불과 하룻밤을 보냈지만 조선인민의 품이 이렇게 푼근할 줄 몰랐습니다.

(강제규, 태극기 휘날리며, 2004)

c. 가져갔으면..전화했을 텐데....승준씨가 기다리구 있을 줄 몰랐거든요.

(김이영, 내사랑 팔짱, 2002)

26) 용례에서 쓰인 ‘줄두’는 ‘줄도’의 구어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 쓰인 용례 중에 보조사 ‘도’가 ‘두’로 사용되는 경우 구어 말뭉치의 용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d. 니가 지금 이렇게 싸가지 없을 줄...너도 몰랐지?

(황성구, 때루아, 2008)

e. 우리두 여자일 줄 몰랐어요.

(구선경·이선영, 백설공주, 2004)

e'. 우리두 여자가 아닐 줄 몰랐어요.

(21)은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을’과 결합하는 어간의 용례이다. (21a)는 동사 ‘듣다’와 결합한 용례, (21b)는 형용사 ‘푸근하다’와 결합, (21c)의 ‘있다’와 결합한 용례, (21d)는 ‘없다’와 결합한 용례, (21e)는 ‘-이다’가 결합한 용례이다. (21e')는 ‘아니다’가 결합한 용례인데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이 ‘아니다’일 경우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가 구어말문치에는 없었다. 하지만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선행 어간으로 ‘아니다’가 올 때 어색하지 않았다. ‘아니다’가 선행 어간으로 결합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쓰임은 아니고 단지 현실 언어 생활에서 빈번히 결합하는 어간은 아니었다.

4.1.4.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

관형형 어미 ‘-을’에 과거시제선어말 어미 ‘-었/았-’이 결합한 형태이다.

(22)

a. 그래도 이 정도로 빠들려 났을 줄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소현경, 찬란한 유산, 2009)

b. 우리 나라와 가장 친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악독했을 줄은 몰랐다.

(이오덕 엮음, 이사 가던 날, 창작과 비평사, 1991)

c. 그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맹구범이가 조산 걱정이 움막으로 기어들어 이를 갈고 있었을 줄은 몰랐었다.

(김주영, 객주5, 창작과비평사, 1996)

(22)는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과 결합한 용례이다. (22a)는 동사 ‘놓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22b)는 형용사 ‘악독하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22c)의 ‘있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4.1.5. 관형형 어미 ‘-었던/았던’

구어 말문치에는 관형형 어미 ‘-던’은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된 ‘-었던/았던’ 형식의 용례만 있었는데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1개의 용례만 있었다.

(23)

a. 소장: 난 미스랑이 기획실장님 비서로 일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구현숙, 열아홉순정, 2006)

b. ?소장: 난 미스랑이 기획실장님 비서로 일하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구.

(23a)는 동사에 관형형 어미 ‘-었던’이 결합된 용례로 ‘-던’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형태이다. 오민석(2015)에서는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로 ‘-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본 논문에서도 제약없이 쓰였으나 관형형 어미 ‘-던’보다 ‘-었던’이 선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다. (23b)에서 ‘일하던 줄 몰랐다’보다 ‘일했던 줄 (은) 몰랐다’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기에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나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도 관형형 어미 ‘-던’ 보다 ‘-었던’이 선행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결합하는 조사

‘관형형 줄 알-’ 구문의 용례보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이 용례의 수가 적은 만큼 선·후행 요소도 다양하게 공기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는 격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들, 들을, 이야’가 있었다. 관형형 어미 ‘-은, -는’을 선행할 때 의존 명사 ‘줄’은 보조사 ‘도’와 결합하였고 후행하는 인치동사는 ‘알다’가 아닌 ‘모르다’가 많았다.

정연주(2016)에서 의존 명사 ‘줄’과 공기하는 ‘알다’는 인지 내용 논항이 목적격 조사 ‘을’과 부사격조사 ‘로’로 표시될 수 있는데 ‘모르다’는 목적격 조사 ‘을’만이 인지 내용 논항을 취할 수 있고 그 논항은 항상 사실로 전제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도 의존 명사 ‘줄’은 부사격 조사 ‘로’를 취하는 경우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4.2.1. 목적격 조사 ‘을’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는 형태가 다른 조사와의 결합보다 많았지만 조사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훨씬 많았다.

(24)

a. 아무리 걱정을 해줘두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나 너는.

(최윤정, 황금마차, 2002)

b. 영달이와 나는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손춘익, 작은 어릿광대의 꿈, 창작과 비평사, 1980)

c. (혼잣말 하듯) 이번 건을 진짜 따낼 줄을 몰랐는데...

(김지우, 부활, 2005)

(24)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24a)

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 (24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 (24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것으로 가장 많은 용례가 있었다.

4.2.2. 보조사 ‘은’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조사 ‘은, 도’가 결합하면 서술어 ‘모르다’를 후행하는 형태가 서술어 ‘알다’를 후행할 때 보다 그 용례가 많았다. 보조사 ‘은’과 결합할 때 서술어 ‘모르다’가 ‘꿈에도 모르다’ 형태가 후행하였는데 보조사 ‘이야’가 결합할 때도 같은 형태가 보였다.

(25)

a. 거칠다는 애긴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정지우, 가문의 영광, 2008)

b. 난 꽤 심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티한 플레이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2006)

c. 내가 진진이 누나한테 방 보증금 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정지우, 글로리아, 2010)

d.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걸었을 줄은 몰랐네...

(김은희·윤은경, 눈의여왕, 2006)

e. 소장: 난 미스랑이 기획실장님 비서로 일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가

(구현숙, 열아홉순정, 2006)

(25)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25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 (25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 (25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이다. 다른 관형형 어미를 선행할 때보다 관형형 어미 ‘-을’이 올 때 서술어의 형태가 ‘꿈에도 모르다’가 많았다. (25d)는 관형형 어미 ‘-었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 (25e)는 관형형 어미 ‘-던’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인데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구어말뭉치에 1개가 있었다. 현실 한국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문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4.2.3. 보조사 ‘도’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 ‘도’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한 용례가 훨씬 많았다.

(26)

a.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니는데도 추운 줄도 몰랐어요.

(정지우, 가문의 영광, 2008)

b. 판 생각하느라고 들어오는 줄도 몰랐네.

(백해영, 90일 사랑할 시간, 2006)

c.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 이렇게 점점 나두 모르는 새 내 마음만 커질 줄도 몰랐구.

(최윤정, 프로포즈, 1997)

(26)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26a)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한 용례, (26b)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한 용례, (26c)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한 용례이다.

4.2.4. 보조사 ‘들’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보조사 ‘들’은 상위문의 청자가 여러명임을 나타내는 복수의 표지이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1개의 용례만 있었다.

(27)

지금, 같은 형제 자매 줄들 모르구 사귀어서 결혼 맘까지들 먹었다가.. 놀라구 기막힌 심정 말두 못할거야, 나두 그날 쓰러진 거 봤지.

(임성한, 보고 또 보고, 1998)

(27)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의존 명사 ‘줄’과 보조사 ‘들’이 결합하는 용례이다.

4.2.5. 조사의 결합형 ‘들을’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는 복수 표지 ‘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로 ‘-을’만 있었다.

(28)

a. 날이 트는데 어째 씻을 줄들을 몰라....

(장진, 웰컴투 동막골, 2005)

b. 젊은 것들이 도대체 어른 위할 줄들을 몰라.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2005)

(28)에서는 의존 명사 ‘줄’에 복수표지인 ‘-들’과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는 용례이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을’이었고 서술어로는 ‘모르다’만 후행하였다.

4.2.6. 보조사 ‘이야’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강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형태이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만 있었지만 ‘모르다’의 의미를 가진 형태가 있었다. 서술어로 ‘알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등이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 ‘알지 못하다, 생각하지 못하다, 상상하지 못하다’의 형태이거나 문장이 수사 의문문 형태를 취할 때 ‘알다’가 아닌 ‘모르다’의 의미가 되었다. 형태는 ‘관형형 줄 알-’ 구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이 되는 것이다.

(29)

- a. 나는 설마하니, 내 눈을 속이구 내가 이런 악착한 짓을 하는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주경중, 동승, 2003)
- b. 이렇게 자식을 돌이나 나눠 가질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윤정, 황금마차, 2002)

(29)에서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29a)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용례, (29b)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할 때 ‘줄’이 보조사 ‘이야’와 결합한 용례이다. 의존 명사 ‘줄’에 보조사 ‘이야’가 결합한 후 후행하는 서술어는 ‘꿈에도 몰랐다’가 대부분이었다.²⁷⁾

5.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

의존 명사 ‘줄’이 하나의 구성으로 쓰이는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의 의미는 능력이 있거나 방법을 알거나 하여 관형절에 제시된 내용의 실현 가능 유무에 관한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능력,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 명사 ‘줄’에 선행 연구로 안정아(2004), 민현식(1998), 이주행(1983), 안효경(2000), 안정아(2004), 오경숙(2009), 오민석(2015) 등이 있다. 안정아(2004)에서 ‘-수 있다/없다’와 의미를 공유하며 의존 명사 ‘수’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구문은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²⁸⁾ 민현식(1998)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능’이라고도 하였다. 이주행(1983)에서 방도의 의미기능을 하는 의존 명사 ‘수’와 비교하여 ‘줄’은 객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안효경(2000)에서는 ‘상황, 방법’의 의미를 가지는데 ‘방법’으로 쓰일 때 ‘상황’보다 제약이 많다고 하였다. 안정아(2004)에서는 ‘줄’이 방법과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능력은 방법에서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오경숙(2009)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능력, 방

27) 그 형태가 ‘꿈에도 {모르다, 생각하지 못하다, 꿈꾸었으랴, 상상했으랴, 짐작하지 못하다, 알았을까}’ 등이었고 이러한 형태의 용례가 구어말뭉치에 120여개 있었다.

28) 안정아(2004)에서는 ‘수’와 ‘줄’이 ‘~을 수 있다/없다’, ‘~을 줄 알다/모르다’ 형태로 쓰이면서 ‘능력’의 유무를 나타내는데 ‘수’는 직접적·단정적이며 ‘줄’은 ‘간접적·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수’가 ‘경우’를 의미할 때와 ‘줄’이 ‘사실’을 의미할 때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이 함께 쓰일 수 있지만 ‘경우’는 가변적이고 선택적인 반면 ‘사실’은 확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법, 방도의 소유 여부를 의미할 때는 어간으로 동작동사를 취하고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며 서술어도 ‘알다, 모르다’만 후행한다고 하였다. 이때 의존 명사 ‘줄’을 포함한 문장의 상위문과 내포문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고 하였다.²⁹⁾ 오민석(2015)에서는 전형적 구성의 하나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를 어간으로 한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고 내포문의 동사는 ‘-었-’과 결합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용례에서도 내포문의 동사가 ‘-었-’과 결합한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방법, 능력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줄’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사실, 인지를 의미하는 의존명사 ‘줄’에 비해 선행 요소, 후행 요소의 제약이 많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방법, 능력’의 의미가 있는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도 선행 연구에서의 ‘방법, 능력’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 밝힌 제약과 다른 점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의지 동사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용례를 분석한 결과 동사뿐만 아니라 명령, 청유가 가능한 의지 형용사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 ‘줄’은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일 경우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만, 이나’와 결합하고 후행하는 서술어가 ‘모르다’일 경우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밖에’가 결합하였다.

5.1. 선행하는 어간

‘방법, 능력’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줄’은 ‘동사 [-을 줄(을) 알-/모르-]’ 구문으로 쓰였다. 그러나 선행 어간으로 동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청유’가 가능한 의지 형용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파악하였다.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는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 모르다’이외의 ‘생각하다, 짐작하다’ 등의 인지동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사[-을 줄(을) 알-/모르-]’ 구문은 관형형 어미 ‘-을’만을 취하는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특이하게 ‘어떻게’를 선행할 때 관형형 어미 ‘-는’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특징에 대해 언급한 이정민(2023)에서 의존명사 ‘줄’ 구문이 ‘방법/능력’의 의미일 때 선행 관형절은 거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로 실현되지만 드물게 ‘-는’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부사어 ‘어떻게’와 잘 어울리며 특정한 행동의 과정을 드러낸다고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 ‘줄 모르다’ 구문뿐 아니라 ‘줄 알다’ 구문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런 현상의 명확한 이유는 앞으로 연구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29) 오경숙(2009)에서는 의존 명사 ‘줄’이 두 가지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데 능력의 유무, 방법이나 방도의 소유 여부를 의미하는 ‘줄 알다, 줄 모르다1’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의미하는 ‘줄 알다, 줄 모르다2’로 분류하여 의미·통사적 특징을 논의 하였다.

30) 키타노 유카(2012)에서 동사 중에서 명령형, 청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지 동사’라 부르면서 ‘의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것을 ‘의지 형용사’라 하였다. 이 ‘의지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와는 달리 모두 ‘하다’가 붙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의 뜻을 가진 어미들을 취한다고 하였다. 의지 형용사는 ‘하다’를 선행하는 요소인 어휘에 ‘의지’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내재 된 비교적 좋은 의미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의지 형용사’의 어휘에는 ‘행복하다, 솔직하다, 감사하다, 조용하다, 겸손하다’ 등이 있는데 본고의 용례 검토에서는 ‘의지 형용사’로 ‘겸손하다’가 있었다.

오민석(2015:96)에서 의존 명사 ‘줄’이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할 때 내포문 주어의 명시 여부에 따라 전형적 구성의 방법, 능력의 ‘줄1’과 사실의 ‘줄2’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도 내포문 주어의 명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0)

- a. 나는 [운전을 {할, *한, *하는, *하던}] 줄 안다/모른다.
- b. [나는 운전을 {할, 한, 하는, 하던}] 줄 안다/모른다.

(오민석, 2015:96)

- c. 너 보이스카웃이니까 빨래 할 줄 알지.
- d. 너는 [너가 보이스카웃이니까 빨래 {할, 한, 하는 하던}] 줄 알지.

(임성한, 보고 또 보고, 1998)

(30a~b)는 오민석(2015)에서 현실 언어에서 수정된 용례를 사용했는데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의존 명사 ‘줄’ 구문의 용례는 내포문의 주어가 없을 경우 제시하지 않고 구어말뭉치나 웹언어에 있는 용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0a)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명시되지 않으며 관형형 어미 ‘-을’만을 취하며 선행어간이 동사일 경우 ‘줄1’ 구성이며 ‘방법, 능력’을 의미한다. (30b)에서는 같은 ‘줄’ 구성이지만 내포문의 주어가 명시되면 관형형 어미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줄2’ 구성이며 ‘사실’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도 용례를 통해 오민석(2015)에서의 내포문의 주어 명시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논의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c)에서 빨래를 할 줄 아는 방법, 능력이 있어 빨래의 가능 여부를 의미하였는데 (30d)로 내포문의 주어를 명시해 주면 ‘빨래를 {할, 한, 하는 하던}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짐작하였다’는 ‘사고’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때 ‘동사 [-을 줄 알-]’ 구문에서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던’ 모두가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5.1.1. ‘동사 [-을 줄 알-]’ 구문

‘동사 [-을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어간은 주로 동사이지만 명령, 청유가 가능한 의지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었다. 선행 어간으로 명령, 청유가 가능한 동사, 의지형용사에 ‘하다’ 결합한 형태가 많았다.

선행 연구에서나 본 논문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에서는 의존 명사 ‘줄’에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였지만 이정민(2023)에서 언급한 대로 ‘어떻게’가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할 경우에는 관형형 어미 ‘-는’이 나타나는 특이한 용례도 있었다.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형형 어미 ‘-을’이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였다.

(31)

- a. 밥은 할 줄 아나요?

(노태우외 기자들, 동아일보 91년 인터뷰 기사, 동아일보사, 1991)

b. 남자는 적제적소에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법입니다.
(이새인·김희주, 개인의 취향, 2010)

c. 뭘 이런 걸 싸 와. 나도 죽 끓일 줄 아는데.
(여지나, 9회말 2아웃, 2007)

d. 그리고 변호사라면 공부 많이 했을텐데 사람이 검손할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맨날 예의없이 큰소리에요?

(홍승희·윤은경, 알게 될거야, 2004)

e. 자네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홍영희, 인생화보, 2002)

(31)에서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하는 ‘줄’이 서술어로 ‘알다’를 후행하는 용례이다. (31a)는 동사 ‘하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31b)는 동사 ‘구사하다’가 어간으로 결합하였는데 ‘X+하다’ 형태의 동사가 많았다. (31c)는 의지동사 ‘끓이다’가 어간으로 결합하였다. (31d)는 형용사 ‘검손하다’와 결합한 용례로 선행어간으로 동사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31e)는 ‘어떻게’를 선행할 때 관형형 어미 ‘-는’이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용례이다.

5.1.2. ‘동사 [-을 줄 모르-]’ 구문

‘동사 [-을 줄(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은 관형형 어미 ‘-을’만 선행하였지만 ‘어떻게’가 올 경우에는 특이하게 관형형 어미 ‘-는’을 취하기도 하였다.

선행 어간은 주로 동사지만 명령, 청유가 가능한 의지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줄 알다’와 동일하였다.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을’과 결합하는 어간으로 ‘X+하다’의 형태가 많았다.

(32)

a. 아줌마 밥 할 줄 모르지?
(구선경·이선영, 백설공주, 2004)

b. 노크할 줄 모르나?
(김은숙·강은정, 파리의 연인, 2004)

c. 엄만 디카 쓸 줄 모르는데 빈이가 무슨 말 안 했어요?
(소현경, 검사 프린세스, 2010)

d. 난 나 자신과 승부가 없다면 절대 행복할 줄 모르는 놈이다!
(이유진, 못된 사랑, 2007)

e. 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선희, 거침없는 사랑, 2002)

(32)에서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줄’이 서술어로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이다. (32a)는 동사 ‘하다’가 결합한 용례이다. (32b)는 동사 ‘노크하다’가 선행어간으로 ‘X+하

다’ 형태를 취한 용례이다. (32c)는 ‘X+하다’ 형태의 동사 외의 명령, 청유가 가능한 동사 ‘쓰다’가 결합한 용례이다. (32d)는 형용사 ‘행복하다’와 결합한 용례로 선행어간으로 동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X+하다’ 형태의 의지형용사도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2e)는 ‘어떻게’가 올 경우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하는 용례이다.

5.2. 결합하는 조사

‘동사[-을 줄(을) 알-/모르-]’ 구문의 의미는 ‘방법, 능력’을 나타내고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일 경우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만, 이나’와 결합하고 서술어 ‘모르다’가 후행할 경우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밖에’와 결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동사[-을 줄(을) 알-/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만, 이나’와 결합하면 서술어 ‘알다’만 후행하고 보조사 ‘밖에’와 결합하면 서술어 ‘모르다’만 후행하였다.

5.2.1. ‘동사 [-을 줄 알-]’ 구문

‘동사 [-을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만, 이나’가 결합하였다.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사 ‘만, 이나’와 결합한 의존 명사 ‘줄’은 서술어로 ‘알다’만 후행하며 서술어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

(33)

a. 내가 이걸 읽을 줄을 알아야지, 불어같은데?

(김정수, 그대 그리고 나, 1997)

b. 참, 너 도서관에서 책 빌릴 줄은 아니?

(홍영희, 인생화보, 2002)

c. 상희 여행사 직원이면 당연히 여행 상품을 팔 줄도 알아야하지 않겠어요?

(알게될거야, 7)

d. 한글 읽을 줄만 알면 붙는 운전 필기시험을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구?

(홍승희·윤은경, 내사랑 못난이, 2004)

e. 니가 뭐 죽 썰 줄이나 알아?

(박혜련, 칼잡이 오수정, 2007)

(33)에서는 의존 명사의 ‘줄’이 ‘알다’를 후행할 때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33a)은 격 조사 ‘을’이 결합한 용례이다. (33b) 보조사 ‘은’이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한 용례이다. (33c)에서 보조사 ‘도’는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줄’이 의존 명사의 방법, 능력을 의미할 경우에 결합하였고 의존 명사의 ‘줄’에는 그 용례가 없었다. (33d)에서 보조사 ‘만’은 의존 명사 ‘줄’이 서술어 ‘알다’를 후행할 때 결합하였다. (33e)에서 보조사 ‘이나’도 보조사 ‘만’과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 ‘줄’이 서술어 ‘알다’를 후행할 때만 결합하였고 ‘모르다’가 결합하는 용례는 없었다.

5.2.2. ‘동사 [-을 줄 모르-]’ 구문

의존 명사의 ‘줄’이 ‘모르다’를 서술어로 후행할 때 조사 ‘을, 은, 도’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항상 함께 쓰이는 보조사 ‘밖에’가 결합하였다.

(34)

a.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말 줄을 몰라서...

(백해영, 90일, 사랑할 시간, 2006)

b. 노인1: 장기 좀 돌 줄 아슈?

호태: 아니, 돌 줄은 모르구요.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2006)

c. 당구 칠 줄도 모르면서..

(백해영, 90일 사랑할 시간, 2006)

d. 남한테 굽실거릴 줄밖에 모르는 김서방에게 누구 한 사람이나 말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창작과 비평사, 1980)

e. 나 원래 일을 벌일 줄밖에 모르잖아.

(신동익·박선자, 메디컬센터, 2000)

f. 빈둥빈둥 놀 줄밖에 모르면서 밥을 먹어?

(손춘익, 작은 어릿광대의 꿈, 창작과 비평사, 1980)

(34)에서는 ‘동사[-을 줄(을) 알-/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 용례이다. (34a)는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이고, (34b)는 보조사 ‘은’과 결합한 용례이고, (34c)는 보조사 ‘도’가 결합한 용례이다.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모르다’일 경우 보조사 ‘도’와 결합하는 용례가 더 많은 것과 같았다. (34d~f)는 조사 ‘밖에’가 결합한 용례인데 보조사 ‘밖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만을 취할 수 있기에 ‘알다’를 후행하지 않는다. 이는 ‘밖에’가 부정극어로서 ‘알다’와는 공기할 수 없고 어휘부정어인 ‘모르다’와만 함께 출현할 수 있다.³¹⁾ 보조사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34d)에서 ‘남에게 굽실거릴 줄밖에 모르는’은 ‘남에게 굽실거릴 방법 그것 이외에는 모르는’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남에게 굽실거릴 방법을 모르다’가 아니라 ‘남에게 굽실거릴 방법만 알다’라는 의

31) 이은섭(1996:67)에 부정 극어와 부정의 요소는 동일한 절 내부에 함께해야 한다는 동일 성분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보문 요구 부정 서술어 구성을 복문으로 파악했을 때 이 조건을 어기는 예들이 있다고 하였다. 부정극어 ‘아무도’가 내포절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정 서술어는 동일한 절이 아니다. 이는 의존 명사 ‘줄’ 구문도 마찬가지였다. 이은섭(1996)에서는 보문 요구 부정 서술어 구성에 나타나는 부정극어와 부정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를 최현숙(1988)에서 설명한 재구조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지’는 후행하는 부정 서술어에 범주적으로 의존적이며 ‘-지 아니하/못하-’ 구성이 하나의 범주처럼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존 명사 ‘줄’도 보조사 ‘밖에’가 결합하면서 ‘모르다’에 의존적이며 ‘줄밖에 모르다’ 구성이 하나의 범주처럼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조사 ‘-밖에’가 결합한 의존 명사 ‘줄’은 서술어로 ‘알다’를 후행하지 않는다.

a. 철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은섭, 1996)

b. 나 [내가 원래 일을 벌일 줄밖에] 모르잖아.

(신동익·박선자, 메디컬센터, 2000)

미가 된다. 이것은 (34e~f)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줄 모르다’의 의미가 (34e)는 ‘일을 벌일 줄만 알다’이지 ‘일을 벌을 줄을 모르다’가 아니며, (34f)에서도 ‘빈둥빈둥 놀 줄만 알다’의 의미로 변화한다. ‘동사 [-을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모르다’를 후행할 때 결합하는 조사들은 모두 ‘할 수 없다’와 대치할 수 있지만 보조사 ‘밖에’가 결합하면 ‘할 수 있다’로 대치되어 의미가 바뀌는 것을 파악하였다.

5.3. 속어 ‘어쩔 줄(을) 모르-’

속어 ‘어쩔 줄 모르-’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의존 명사 ‘줄’의 관용 표현으로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 표현이 아닌 의존 명사 ‘줄’의 의미로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의존 명사 ‘줄’의 의미나 관용 표현으로 쓰이지 않았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의 의미인 동사 ‘어찌하다’의 준말로 쓰이는 ‘어찌다’의 예문으로 ‘어쩔 줄 모르다’가 제시되었다.

김진희·김선혜(2012)에서 의존 명사 ‘줄’의 관용 표현으로 제시되었는데 몹시 당황하거나 어떠한 감정이 스스로 통제하고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거세게 일어날 때 쓴다고 하였다. 단독형으로 ‘어쩔 줄 모르다’나 ‘-어(서) 어쩔 줄을 모르다’의 형태로 쓰인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는 의존 명사 ‘줄’의 비전형적 구성으로 분류하였는데 ‘어찌는 법을 모르기에 어찌는 행동을 하지 않는’의 의미로 쓰이며 현대국어에서 고정형으로 쓰이면서 ‘당황스러움, 주체못함’이라는 관용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속어로 고정되어 쓰이기에 연구에 따라서 관용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의존 명사 ‘줄’의 의미에서 ‘방법,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구어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동사 [-을 줄 모르-]’ 구문에서 ‘어쩔 줄 모르-’의 용례가 가장 많았다. 일의 방법이나 방도의 의미인 의존 명사 ‘바’와 대체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로 쓰일 수도 있다.³²⁾ 아래의 용례를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보다는 ‘어쩔 줄 모르-’에는 ‘당황함, 행동이나 감정을 주체 못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 ‘동사 [-을 줄 모르-]’ 구문으로 분류하면서 ‘당황하여 어찌할 방법을 모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의존 명사 ‘줄’을 선행하는 ‘어쩔’이 ‘어찌할’로도 쓰였는데 구어 말뭉치에 약 2,700개의 용례가 있었다.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가 없는 ‘어쩔 줄 모르-’형태가 가장 많았고,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되어 ‘어쩔 줄을 모르-’형태도 많았다. 의존 명사 ‘줄’이 목적격조사 ‘을’외에 보조사 ‘은’과도 결합한 용례가 있었다.

(35)

a. 전화 끊고 분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른다.

(김영현, 히트, 2007)

32) 우형식(1995)에서의 의존 명사 ‘바’의 용례로 본 논문에서는 서술어로 ‘모르다’가 후행하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너무 고마워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b. 복만은 얼굴이 상기되어 어쩔 줄을 모른다.

(김군태 외, 2008 코끼리, 2008)

c. 승희,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한다.

(박광춘·이우혁, 퇴마록, 1998)

d. 종수,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다.

(이경희, 고맙습니다, 2007)

e. (너무 미안하고 이상하게 서럽기도 하고..어쩔 줄은 모르겠고..겨우 다시) 내가아, 너 무 오래 걸었더니..

(송혜진, 달콤한 나의 도시, 2014)

(35)에는 동사 ‘어찌하다’가 ‘줄 모른다’와 결합하여 숙어로 사용되는 용례이다. (35a)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용례이고 (35b)는 ‘어쩔’을 선행할 때 ‘줄’이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이다. 목적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많이 쓰였다. (35c)는 ‘어쩔’의 형태가 ‘어찌할’로도 쓰이는 용례이고 (35d)는 ‘어찌할’을 선행할 때 ‘줄’이 조사 ‘을’과 결합한 용례이다. (35e)에서 숙어 ‘어쩔 줄 모르-’는 굳어진 표현으로 쓰여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가 없는 형태이거나 목적격 조사 ‘을’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 ‘은’도 취할 수 있었다.

6.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

의존 명사의 ‘줄’에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을 종결하는 ‘줄’ 단독형, ‘줄은, 줄이야, 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를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이라고 분류하였다. 이 구문은 ‘방법, 능력’이 아닌 ‘사고’를 의미하였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는 ‘줄, 줄이야, 줄은, 줄요’의 형태가 있었는데 주로 신문기사, 도서의 제목, 댓글 등에서 쓰였다. 이런 형태는 의외성, 놀라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

선행 연구에서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의 형태들을 종결어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논의가 있었지만³³⁾ 의존 명사 ‘줄’에 생략된 서술어를 쉽게 복원할 수 있고 ‘관형형 줄 알-/모르-’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선·후행 요소나 문장의 형식에 따라 ‘강조, 놀라움, 의외성’등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정훈(2006:50)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를 복원하기 어려운 하나의 의미로 굳어져 ‘후회, 의외성’의 양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김진희·김선혜(2012:108)에서는 ‘-을 줄이야, 줄은’등이 ‘사실’의 의미 기능 이상의 ‘놀라움, 감탄, 화제 도입’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110)에서 ‘줄’ 종결형은 선행하는 관형절에 따라 ‘사실성, 반사실성’에 기초한 ‘의외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줄이야’ 종결형은 ‘의외성, 놀라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후행하는 보조사 ‘이야’의 의미, 즉, ‘강조’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

33) 이정훈(2006), 정한데로(2010), 김진희·김선혜(2012), 오민석(2015) 등의 연구에서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의 ‘줄’ 구문은 ‘종결어미화, 하나의 단위화, 문법화’가 되어가는 형태로 보았다.

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도 후행하는 보조사 ‘이야’가 가지고 있는 ‘강조’의 의미로 인해 ‘줄이야’가 ‘줄’ 단독형에 비해 강조나 놀라움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연주(2016)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서술어를 복원할 때는 전형적인 ‘줄’ 구문을 토대로 복원한다고 하였다. 생략된 서술어를 도출할 때 ‘줄’ 단독형일 경우 ‘알다’를 ‘줄은, 줄이야’일 경우는 ‘모르다’를 서술어로 복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정민(2023:119)의 메신저 말뭉치를 통해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 또는 ‘모르다’를 명확히 복원시켜 분석하였다. 서술어가 ‘모르다’ 생략된 ‘줄은’은 관형절에 나타나는 사건을 단순 강조 기능만 갖고 ‘줄이야’는 ‘줄 모르다’를 대신하여 사건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서술어 ‘알다’가 생략된 경우 사건이 거짓이고 주어와 화자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런 유형은 과장, 조롱을 의미하는데 서술어가 생략되면서 의미가 더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서술어가 생략된 후 억양이나 조사에 의해 의미가 첨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었더라도 의존 명사 ‘줄’의 의미는 의존 명사의 ‘줄’의 의미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후행하는 서술어도 ‘알다, 모르다’ 등의 인지동사 안에서 복원할 수 있었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보조사와의 결합이나 말 줄임에서 오는 부가적인 ‘의외성, 놀라움, 강조’ 등의 의미를 더하여 전달한다는 것에서 후행하는 서술어가 있는 구문과 다르다고 보았다. 임성규(1989)에서 논의한 강조에 대한 특징인 화용적 측면에서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도 강조의 기능이 발현될 수 있고, 강조는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강조에는 정도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이정민(2023)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강조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상호간의 구정보는 생략하고 신정보만 간략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생략에 의한 강조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한국어 입말에서 강조를 들어내기 위해 어떤 문법적 장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생략이나 함축만으로 강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서술어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등의 인지동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알다’ 또는 ‘모르다’를 명확히 구분되어 어떤 문장에는 무조건 ‘알다’ 혹은 ‘모르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혀둔다.

(36)

a. 김연우X박칼린 심사평, 트로트 오디션서 불 줄은.

(뉴스엔, 박인수 기자, 2023)

a'. 김연우X박칼린 심사평, 트로트 오디션서 불 줄은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b.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고 당신 만나고 다니는 줄...

(현고운, 1%의 어떤 것, 2003)

b'. 진짜 몰랐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고 당신 만나고 다니는 줄...알았으면 무릎꿇고 안 빌었어

c. 수학이 일상에서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클라라 그리마, 출판하이픈, 2023)

c'. 수학이 일상에서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몰랐다, 알았다, 상상했어?, 꿈꾸었으랴.}

(36)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구문의 용례이다. (36a)에서 '줄은'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의존 명사 '줄'이 조사 '은'과 결합하여 종결된 문장으로 신문 기사로 쓰인 용례이다. (36a')에서 후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몰랐다)'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인지 동사 '상상하다'에 부정 표현을 후행시켜 '알지 못하다, 모르다'의 의미가 있는 서술어를 복원할 수 있었다. (36b)에서는 '줄'을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의존 명사 '줄' 단독형으로 종결된 문장으로 일상어에서 많이 쓰이는 용례이다. (36b')에서 후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몰랐다)'를 도출할 수 있는데 구어 말뭉치에서 선행 문장은 '진짜 몰랐어.'이고 후행 문장은 '알았으면 무릎 꿇고 안 빌었어'가 후행하였다. 이렇게 서술어가 생략된 '줄'은 후행하는 서술어를 '알다', '모르다'를 쉽게 도출할 수 있지만 '생각하다, 꿈꾸다, 상상하다' 등의 인지동사도 취할 수 있다. (36c)는 의존 명사 '줄'이 조사 '이야'가 결합되어 종결된 문장으로 책제목으로 쓰인 용례이다. (36c')에서 '모르다'를 도출할 수 있지만 '알았다, 상상했어?, 꿈꾸었으랴' 등이 후행해도 어색하지 않다. 문장의 형태가 수사 의문문이면 '모르다'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6.1. '줄' 단독형

의존 명사 '줄'과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단독형에서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의존 명사 '줄'에 생략된 서술어를 예측할 때 '알다'와 관련된 인지 동사가 많았다. 정연주(2016)에서는 '줄' 단독형일 경우 전형적인 '줄' 구문의 사례를 토대로 생략된 서술어 '알다'를 쉽게 복원할 수 있고 '줄'에 선행하는 명제를 반사실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런 무표적인 경우는 특별한 단서 없이 생략된 서술어를 도출할 때 일상대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는 형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정민(2023)에서 서술어 '알다, 모르다'가 생략되는 유형을 분석하였다. '알다'가 생략되는 유형은 관형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화자도 주어도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을 때 핵심 정보만 발화하면서 강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다. 카카오톡 메신저 용례를 분석하여 비유를 통한 과장, 조롱 등을 뜻하는 문장일 때는 다른 유형보다 '알다'의 생략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의미들은 일종의 강조라고 하면서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강조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아래의 용례에서 (37a)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될 때 불이 나지도 않았고 (37b)는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처럼 운동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강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37)

a. (여행 일정이) 끝나고 오니 엉덩이 불난 줄.

b. 3시간동안 운동함. 태능 선수촌인 줄.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는데 불가능각.

(이정민, 2023)

본 논문에서도 후행하는 서술어를 생략한 ‘줄’ 구문에서는 비유나 생략을 통해 화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생략과 과장을 통해 강조의 효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조롱과 과장을 통한 강조는 사적인 대화인 일상어에 주로 쓰이는 형식이었다.

오민석(2015)에서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단독형 구성이 서술어를 복원하면 내포문 명제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Vending 줄로 알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존 명사 ‘줄’과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면 서술어로 ‘알다, 생각하다, 짐작하다’ 등만 후행하였고 ‘모르다’는 후행하지 않았다. 서술어가 생략되어 의존 명사 ‘줄’ 단독형일 경우 ‘모르다’가 서술어로 복원하기 어렵고 ‘알다’가 복원이 쉬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았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은 다음과 같다.

(38)

- a. '뉴스룸' 이정하 “父 조인성·母 한효주, 잘못 태어난 줄”
(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 2023)
- b. 6년 연인과 결별한 90만 유튜버…“먼 나라 이야기인 줄”
(공감언론 뉴시스, 이창환 기자, 2023)
- c. 사람들이 그냥 다 너한테 고개 숙이고..야 난 무슨 니가 사장 부인쯤 되는 줄....
(박지은, 내조의 여왕, 2009)
- d. 이경규 "홍진경 섭외 깎는데..유튜브 쉬울 줄, 해보니 어려워"('르크르')
(헤럴드POP, 김지혜 기자, 2023)
- e. "그래도 뭔가 조금은 틀리는 게 있을 줄." 훈상이는 일부러 김누리 선생님께 핀잔을 들으려고 작정한 태도였다.
(우리교육 중등용 95년 1월호, 우리교육 편집부, 우리교육, 1995)
- f. ‘이 정도일 줄’ 저출산 직격탄에 초1 사상 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뉴스1, 서한샘, 2023)

(38)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공기하는 요소에 대한 용례로 관형형 어미 ‘-은, -는, -을’이 있었다. 이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이다, 있다’가 있었다. 오민석(2015)에서 ‘Vending 줄로 알았다’의 V가 모든 관형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지만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관형형 어미 ‘-은, -는’만 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³⁴⁾ 용례를 분석한 결과 관형형 어미 ‘-은, -는, -을’을 취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용례에서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되었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은 보통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평소에 입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38a)는 관형형 어미 ‘-은’에 동사 ‘태어나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기자는 화자의 의도를 간결하고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술어를 생략하였다. (38b)는 관형형 어미 ‘-은’에 ‘-이다’가

34) 오민석(2015)에서의 용례인데 서술어가 생략된 구성에서는 관형형 어미 ‘-은, -는’만 취하고 하였고 후행하는 서술어를 복원하면 모든 관형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밤에 배불러 죽{*-을, -은, -는}줄.
이 밤에 배불러 죽{*-을, -은, -는}줄로 알았다.

(오민석, 2015)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로 서술어를 복원할 때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 알았어요’가 되었다.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생각했다는 ‘관형형 줄 알-’ 구문과 동일한 ‘사고’의 의미였다. (38c)는 관형형 어미 ‘-는’에 동사 ‘되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인데 비교나 비유를 통해서 상대방을 과장하여 조롱하는 효과가 있었다. (38d)는 관형형 어미 ‘-을’에 형용사 ‘쉽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여기서 화자는 유튜브가 쉬울 줄 알고 상대방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책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를 생략하였다. (38e)는 관형형 어미 ‘-을’에 ‘있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38f)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 서술어로 ‘알다’가 아닌 ‘모르다’가 복원되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는 내용이었다. 의존 명사 ‘줄’은 결합하는 조사가 생략된 용례가 많았고 ‘줄’에 결합하는 조사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서술어로 ‘알다’를 가장 많이 후행하였다. ‘줄’ 단독형일 경우에도 후행하는 서술어로 ‘알다’를 가장 많이 복원되었으나 ‘모르다’를 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6.2. 줄은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용례로 구어 말뭉치, 기사문, 기사 제목에 있었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서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용례가 가장 많았는데 ‘줄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이 정도일 줄은’ 형태가 많았다.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에서 모든 관형형 어미를 선행하였는데 서술어가 생략된 ‘줄은’에서도 ‘-던, -었던’을 제외한 관형형 어미 ‘-은, -는, -을, -었을’을 선행하였다.

정연주(2016)에서는 ‘줄은’이나 ‘줄이야’ 같은 경우 서술어로 ‘모르다’를 후행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서술어가 생략된 ‘줄’ 뒤에 조사로 ‘이야’나 ‘은’이 오는 경우에 ‘모르다’를 복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경우 서술어로 ‘알다’에 비해 ‘모르다’를 후행하는 용례가 많았다. 이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의 형태가 기본이 되어 생략된 서술어를 복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서 생략된 서술어는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짐작하다’등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술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의 3장에서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보조사 ‘은’과 결합한 경우 후행하는 서술어로 ‘모르다’가 주로 나타났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모르다’의 형태가 아닐 경우에도 인지동사 ‘생각하다, 상상하다, 짐작하다’ 등이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 ‘모르다’의 의미가 되었다.³⁵⁾ 이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의 ‘줄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생략된 서술어의 형식이 수사 의

35) 인지동사 ‘상상하다’가 부정표현과 함께 쓰인 용례인데 형식으로 보면 ‘관형형 줄 알-’ 구문이고 의미는 ‘모르다’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윤은경·김은희, 겨울연가, 2002)

문문이거나 부정 표현과 인지 동사가 함께 쓰인 형태인 ‘생각하지 못하다, 상상하지 못하다’ 등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구문의 형식은 ‘관형형 줄 알-’로 분류되었지만 의미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이 되는 것이다. 생략된 서술어의 의미나 형태가 무조건 ‘모르다’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알다’인 경우도 나타날 수 있었다.

(39)

- a. '자외선' 이 정도일 줄은... "점 크기 변했다면 병원 찾아야" 경고
(한국경제, 이지현기자, 2023)
- b. 난 니가 핫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아인 줄은...
(김은희·윤은경, 낭랑 18세, 2004)
- c. 저도 의외군요. 그 인간하고 같이 다니시는 줄은...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2006)
- d. 베베 바다 “스우파2 시작 전, 내가 이렇게 잔소리 많을 줄은”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2023)
- d'. 베베 바다 “스우파2 시작 전, 내가 이렇게 잔소리 많을 줄이야”
- e. 큰 거 수습되나 했더니 ... 제대로 한방이 기다릴 줄은 ..
(장진, 굿모닝 레지던트, 2009)
- f. 근데...이렇게 결혼을 했을 줄은....전 미국에서도 주욱 혁준씨만 생각했거든요
(김은희·윤은경, 낭랑 18세, 2004)
- f'. 근데...이렇게 결혼을 했을 줄은....{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39)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공기하는 요소에 대한 용례로 관형형 어미 ‘-은, -는, -을’이 있었다.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가 있었다. (39a)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은’에서 ‘이 정도일 줄은’ 형태가 인터넷 신문 제목이나 웹말에서 많이 쓰였다. (39b)는 관형형 어미 ‘-은’에 결합하는 어간은 ‘-이다’의 용례가 많았다. (39c)는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하는 동사 ‘다니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39d~e)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하는 용례로 대부분 ‘-을 줄은’ 형태이고 신문 제목이나 평소 언어생활에서 ‘줄’ 단독형보다 많이 쓰였다. 김진희·김선혜(2012)에서 ‘사실’을 나타내는 ‘줄’이 선행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감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서술어가 생략된 ‘ㄹ/을 줄이야’와 ‘줄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서술어로 ‘모르다’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줄은’의 형태가 ‘줄이야’보다 억양, 화자의 놀라움을 등을 뚜렷하게 전달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39d)에서 (39d’)로 바꾸면 확실히 의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줄’에 후행하는 보조사 ‘이야’와 ‘은’의 의미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였다. (39f)는 관형형 어미 ‘-었을’에 ‘하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로 서술어 ‘모르다’가 자연스럽게 복원되었다. 생략된 서술어로 수사의문문 형태의 ‘알다’나 ‘생각하다’와 부정표현이 함께 쓰인 형태가 어색하지 않았다.

6.3. 줄이야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보조사 ‘이야’가 결합한 용례는 구어 말뭉치에도 있지만 인터넷 기사, 도서의 제목 등에 주로 있었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이야’가 관형형 어미 취할 때 김진희·김선혜(2012:108)에서는 ‘줄이야’를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을’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오민석(2015:111)에서는 ‘ending줄이야’ 구성에서 관형형 어미 ‘-을’이 주로 결합하지만 관형형어미 ‘-은’이 결합할 경우는 내포문의 서술어로 ‘형용사, -이다’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용례에서 의존 명사 ‘줄’은 관형형 어미 ‘-은, -을, -었을/았을’을 취하였고 오민석(2015)에서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선행어간으로 ‘형용사, -이다’만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동사, 형용사, -이다’가 결합할 수 있었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이야’의 형태는 ‘-을(-었을/았을) 줄이야’가 대부분이었다.

김진희·김선혜(2012)에서 ‘사실’을 나타내는 ‘줄’이 선행요소와 결합해 ‘ㄱ/을 줄이야’로 쓰일 때 ‘감탄’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ㄱ/을 줄이야’ 형태일 때 단순히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로 보기에는 어렵고 하나의 어미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ㄱ/을 줄이야’ 뒤에 서술어 ‘모르다’를 상징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화자의 놀라움을 강조하는 기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며 ‘사실’의 의미 기능을 하는 의존 명사 ‘줄’ 구성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줄이야’ 구성에 ‘줄’ 종결형이나 상위문 서술어를 복원한 구성과는 다른 ‘의외성, 놀라움’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다른 구성보다 의외성, 놀라움의 의미가 강한 이유는 ‘줄이야’ 구성을 이루는 보조사 ‘이야’의 의미, 즉 ‘강조’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줄이야’는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한 놀람, 감탄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의존 명사 ‘줄’의 고유의 의미가 아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이야’가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보았다. 이정민(2023)에서 ‘줄이야’가 서술어로 ‘모르다’를 복원했을 때 상위문의 주어가 관형절이 가리키는 사건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때만 나타나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주어가 인지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말할 때 놀람이나 후회의 감정을 동반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이야’에 서술어로 ‘모르다’를 상징하기가 가장 쉬운데 인지동사에 부정 표현이 후행되어 ‘모르다’의 의미가 있는 ‘생각하지 못했어, 상상하지 못했어’ 등도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었다.

(40)

- a. 등록금은 해결했다구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그 돈을 흘랑 날린 줄이야..
(홍정은·홍미란, 쾌걸춘향, 2005)
- b. 데뷔 20년만 재평가 받는 KCM, 이렇게 예능감 좋은 줄이야.
(뉴스엔, 석재현 기자, 2020)
- c. 우리 대표가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인 줄이야.
(박정란, 사랑해 울지마, 2008)
- d. 공여사:죽자고 덤빌텐 언제고 이렇게 꼬리를 내릴 줄이야.
(권음미, 로열패밀리, 2011)

e. 아 힘들다. 집안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임현경·이초은, 공주가 돌아왔다, 2009)

f. 거기에서 든구서 업치락뒤치락 이젠 살았나 보다 하고 왔더니만, 또 이렇게 돼 있을 줄이야...

(이주홍, 피리부는 소년, 삼성미디어, 1991)

g. 여성들이 많이 사는 차 TOP10...“앗! 미니가 없을 줄이야”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2012)

h. 그 일이 고달픔을 이겨내고 까닭 모를 원한을 이겨내는 짓일 줄이야.

(나,고은, 고은, 민음사, 1994)

i. 배그 모바일 대표팀 “중국, 실력 80% 숨겼을 줄이야”

(홍규빈 기자, 연합뉴스, 2023)

(40)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공기하는 요소에 대한 용례로 관형형 어미 ‘-은, -을, -었을/았을’이 있었다.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가 있었다. (40a~c)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하는 용례로 (40a)는 동사 ‘날리다’가 어간으로 결합하였다. 오민석(2015)에서 보면 관형형 어미 ‘-은’은 ‘형용사, -이다’만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동사도 취할 수 있었다. (40b)는 형용사 ‘좋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로 동사가 결합한 용례보다 더 많았다. (40c)는 ‘-이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40d~h)는 관형형 어미 ‘-을’이 선행하는 용례로 대부분 ‘-을 줄이야’ 형태였다. (40d)는 동사 ‘내리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40e)는 형용사 ‘힘들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40f)는 ‘있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40g)는 ‘없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40h)는 ‘-이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 (40i)는 동사 ‘숨기다’가 어간으로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과 결합한 용례인데 관형형 어미 ‘-었을/았을’은 관형형 어미 ‘-을’과 동일하게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가 어간으로 올 수 있었다.

6.4. 줄요

의존 명사 ‘줄’에 예사높임 ‘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구어 말뭉치에는 보이지 않았고 웹말에 보이는데 댓글(답글) 쓸 때나 인터넷 기사 제목으로 쓰였다. 댓글(답글)의 내용이 기사문의 제목이나 기사문의 내용으로 그대로 쓰였다.

정한데로(2010:57)에서 ‘형식명사+-요’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인터넷 언어는 경제성과 청자 대우를 위한 전략을 모두 실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였다. ‘줄요’ 종결형은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후 ‘-요’의 결합에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인터넷 언어에서 높임의 보조사 ‘요’의 결합은 다수의 청자를 가정한 비격식적인 높임의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본고도 동의한다. ‘-(으)ㄴ 줄’이 참여하는 구성으로 선행하는 어간은 동사, 형용사, 계사가 올 수 있으며 ‘-(으)ㄴ 줄’ 구성도 예가 많지 않지만 ‘줄요’를 선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줄요’는 후행하는 서술어를 선행행 요소에 의해 복원이 쉽다는 점에서 문법적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는 ‘줄요’에 해당하는 용례들은 구어와 문어의 중간단계인 웹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

으로 ‘ending줄’ 구성의 하나로 보았다. 이 구성은 의외성, 놀라움이라는 양태 의미, 반말체 경계에 있는 것으로 종결어미화 과정의 가능성에 있다고 하였다. 오민석(2015)에서는 ‘ending줄’에 보조사 ‘요’가 붙은 형식으로 보아 용례는 ‘ending줄’ 구성만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의존 명사 ‘줄’에 보조사 ‘요’가 붙은 구성으로 보았지만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의존 명사 ‘줄’에 비해 ‘줄요’는 관형형 어미와 ‘-을’이 출현이 빈번하지 않았고 혼잣말로도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 ‘줄’ 구문에 비해 ‘줄요’ 구문은 다수의 청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따로 구분하였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에서 ‘줄, 줄은, 줄이야’는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용례가 많았는데 ‘줄요’인 경우 ‘-이다’를 어간으로 하여 ‘-인 줄요’ 형태가 용례로 가장 많았다.

(41)

a. 팬들도 "천사가 내려온 줄요 ㅎㅎ"

(OSEN, 최지연 기자, 2022)

b. 글을 본 누리꾼은 "술 작작 마셔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인 줄요",

(뉴스엔, 서유나 기자, 2023)

c. 방송 후 시청자들은 "보는 내내 배꼽 빠져 죽는 줄요."

(증권경제신문, 이선영 기자, 2023)

d. 저는 당연히 레고 사이즈일 줄요..

(김소장, 스타벅스 버디 세트 플레이모빌 상품리뷰, 2021)

(41)에서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에 공기하는 요소에 대한 용례로 관형형 어미 ‘-은, -는’이 있었다.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동사, -이다’가 있었다. (41a~b)는 관형형 어미 ‘-은’이 선행하는 용례로 (41a)는 동사 ‘내려오다’가 어간으로 결합하였고 (41b)는 ‘-이다’가 어간으로 결합한 용례이다. 어간으로 ‘-이다’가 결합한 형태가 가장 많았다. (41c)는 어간으로 동사 ‘죽다’가 결합한 관형형 어미 ‘-는’이 선행하는 용례이다. (41d)는 관형형 어미 ‘-을’을 선행하는 용례로 ‘-이다’가 선행어간으로 결합하였다. 블로그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나 상품의 리뷰 등을 쓸 경우에는 용례가 있었지만 구어말뭉치, 신문제목, 댓글 등에서는 찾지 못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알-’ 구문, ‘관형형 줄 모르-’ 구문과 방법, 능력을 의미하는 ‘동사[-을 줄 알-/모르-]’ 구문,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으로 나누어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의존 명사 ‘줄’은 항상 관형형 어미가 선행하고 인지동사 ‘알다/모르다’를 주로 후행시키며 다양한 조사와도 결합하며 인지동사를 후행하였다. 하지만 의존 명사 ‘줄’은 구문에 따라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의 제약을 보이며 의미도 달랐다.

본문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알-’ 구문에서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 관계를 알아보았다.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은, -는, -을, -었을/았을, -던, -었던/았던’이었다. 관형형 어미 ‘-던’의 경우 제약이 있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관형형 어미 ‘-던’보다는 ‘-었던/았던’의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쓰였다. 선행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를 취할 수 있었지만 ‘어떤’이 선행할 때 의존 명사 ‘줄’은 서술어로 ‘알다’만 후행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하는 조사는 목적격 조사 ‘을’, 부사격 조사 ‘로’와 보조사 ‘은, 만, 도, 들, 이야, 이나’와 조사의 결합형 ‘로만’이 있었다. 다양한 조사와 결합하였지만 조사가 생략된 용례가 대부분이며 목적격 조사 ‘을’과 가장 많이 결합하였다. 의존 명사 ‘줄’과 결합하는 조사 중에서는 서술어로 ‘알다’만 요구하는 보조사 ‘로, 로만, 만, 이나’가 있었다. 서술어로 인지 동사 ‘알다’ 외에 ‘생각하다, 느끼다, 예상하다, 상상하다’ 등을 후행하였다.

4장에서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는 ‘관형형 줄 알-’ 구문과 같은 특징이 보였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이런, 그런, 이렇’이 의존 명사 ‘줄’에 선행할 때 조사 서술어로 ‘모르다’를 후행하였다. 이때 의존 명사 ‘줄’에 결합하는 조사는 보조사 ‘도, 은’이었다. 선행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를 모두 취할 수 있으나 구어 말 문체에 ‘아니다’가 오는 용례는 없었다. 하지만 어간으로 ‘아니다’가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형형 줄 모르-’ 구문에서 의존 명사 ‘줄’이 취하는 조사로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이야, 들, 들을, 도’가 있었다.

5장에서 ‘방법, 능력’을 의미하는 ‘동사[-을 줄(을) 알-/모르-]’ 구문의 선·후행 결합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행 어간으로 대부분 동사를 취하고 선행 연구에서도 동사만이 결합한다고 하였지만 명령, 청유가 가능한 의지형용사일 경우는 어간으로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를 ‘-을’을 취하였지만 ‘어떻게’가 선행할 경우 관형형 어미 ‘-은, -는’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알다’일 경우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만, 이나’와 결합하고 ‘모르다’가 후행할 경우 목적격 조사 ‘을’, 보조사 ‘은, 도, 밖에’와 결합하였다.

6장에서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은 ‘줄, 줄은, 줄이야, 줄요’가 있는데 후행하는 서술어로 주로 ‘알다, 모르다’를 복원할 수 있었다. 생략된 서술어로 ‘알다’ 또는 ‘모르다’의 한정된 것은 아니고 부정 표현과 인지 동사가 함께 쓰인 형태이거나 문장이 수사어문문일 경우 ‘알았겠는가?, 몰랐나, 생각했을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등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서술어가 생략된 ‘줄’ 구문은 ‘방법, 능력’의 의미가 아닌 ‘사고’를 주로 의미하면서 신문기사, 서적의 제목, 댓글, 웹언어 등에서 주로 쓰이며 선·후행 요소나 문장의 형식에 따라 ‘강조, 놀라움, 의외성’ 등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은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을 구문으로 나누고 이 구문에 따른 문법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사고를 의미하는 ‘관형형 줄 알-/모르-’ 구문은 공기하는 요소가 다양하여 느슨하게 구성된 것에 비해 방법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동사 [-을 줄 알-/모르-]’ 구문은 공기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긴밀한 구성의 형태를 보였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 김진희·김선혜(2012), 「의존 명사 {줄} 구성의 의미기능 연구-국어교육에서 문형 선정 및 기술을 위한 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하다, 97-123쪽.
- 권선영(2008), 「의존명사의 후행요소 결합 제약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영(2009), 「한국어 시제 범주」, 태학사.
- 민현식(1998), 의존명사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방위남(2022), 「‘관형사형 어미 + 줄 모르다’ 의미기능과 문법제약」,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안정아(2004),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121-145쪽.
- 안효경(2000),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형식(1995), 「의존 명사 ‘것, 바, 줄’의 분포와 의미기능」, 한어문교육 제3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5-38쪽.
- 오경숙(2009), 「‘줄 알다’, ‘줄 모르다’와 사실 인식 표현」, 한국어의미학 30, 143-161쪽.
- 오민석(2015),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통사와 의미」, 어문연구 제43권 제1호, 89-120쪽.
- 이익섭, 이상역, 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 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익섭(2018),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은섭(1996), 「현대 국어 부정문의 통사구조」, 국어연구 제140호, 국어연구회.
- 이정민(2023), 「‘줄 모르다/알다’ 구문 분석 -카카오톡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98집, 우리말글학회, 85-123쪽.
- 이정훈(2006), 「공기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 -의존 명사 ‘줄’을 대상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서강대 언어정보 연구소, 45-66쪽.
- 이주행(1983),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수’와 ‘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4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65-275쪽.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 생활 국어 문법의 이해(9), 국어연구소, 72-99쪽.
- 정연주(2016), 「의존 명사 ‘줄’의 기능 특화 양상」, 영주어문 제34집, 65-94쪽.
- 정혜선(2018), 「중세국어 의존 명사 ‘줄’ 구성연구」, 한국어학 80, 235-257쪽.
- 정한데로(2010), 「“형식명사+요” 구성에 관한 소고(小考)-인터넷 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1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7-65쪽.

최정도(2007), 「국어 의존 명사 구성에 대한 연구 -분포제약의 계량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영(2016), 「한국어 교육을 위한 동사 ‘알다, 모르다’가 이루는 표현문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타노 유카(2012), 「현대 한국어 의지 형용사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사만(2003), 「중세, 근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분포와 의미」, 영남학 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63-304쪽.

하신영(2019), 「‘-는지 알다/모르다’ 관련 한국어교육용 표현 문형의 설정에 대한 제안」,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21-144쪽.

황흔(2022), 「‘-었-’과 ‘-던’의 의미 결합 연구」, 인문사회 21, 제13권 6호, 1903-1918쪽.

<Abstract>

A Syntactic Study of the Modern Korean Dependent Noun 'jul' Construction

Jang Hye Jin

This paper divides the modern Korean dependent noun 'jul' into phrases from actual language data, into the phrase 'jul al-/mor-', which has the semantic function of 'thinking', and 'verb[-eul jul al-/mor-]', which has the semantic function of 'method/ability'. The grammatical features were examined by dividing the jul into 'jul' phrases, such as 'jul al-/mor' phrases, and 'jul' phrases in which the trailing predicate is omitted.

To summarize what was discussed in this paper,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modern Korean dependent noun 'Jul' while proposing a research method.

In Chapter 2, we looked at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t noun 'jul'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n previous studies, the dependent noun 'jul' had the characteristic of being preceded by a formal ending, combined with a particle, and usually followed by 'know, don't know' as a predicate. Depending o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elements, the dependent noun 'jul' was classified into phrases. It is said that when the dependent noun 'jul' means 'fact', it is less restricted by preceding and following elements, but when it carries the meaning of 'method/ability', it is more restricted by preceding and following elements.

In Chapter 3, when the phrase 'jul al-' means 'accident', the suffix '-eun, -nun, -eul, -dun' preceding 'jul' is taken, and the combined form of '-dun' is It is not impossible, but in reality, the form '-was' was used. As the preceding stem, 'verb, adjective, is, is not, -is, is not' are combined. 'Know' was typically used as a predicate. The cognitive verbs 'think' and 'anticipate' were included. The particle that combines with the dependent noun 'Jul' is the accusative particle 'eul', the adverbial particle 'ro', the auxiliary 'eun, man, do, ina, iya, deul', and the combination of case particle and auxiliary 'roman'. When combined with the particles 'ro, roman, man, ina', the predicates 'know, think, here', etc. are followed, and the indefinite 'don't know' is not followed.

In Chapter 4, when the phrase 'Jul' in the form of 'don't know-' means 'accident', '-eun, -nun, -eul, and -dun' are all used as an adjective ending preceding 'jul'. However, in the case of '-dun' the form '-neun' was actually used. As stems, 'verbs, adjectives, are, are not, -is, is not' are combined with adjective endings. As a predicate, only 'don't know', the negative lexical counterpart of 'know', was followed. The conjunctive particle takes the accusative particle 'eul' and the auxiliary verb 'eun, do, iya, deul, deul'.

In Chapter 5, when the phrase 'verb[-eul jul al-/mor-]' means 'method/ability',

it only takes the formal ending '-eul' and the preceding stem is also a 'will verb, will' that can be in the imperative and declarative forms. 'Adjective' is combined. The dependent noun 'jul' is combined with the accusative particle 'eul' and the auxiliary 'eun, do', the auxiliary 'man, ina' follows only the predicate 'know', and the auxiliary 'outside' follows only the indefinite form 'don't know'. there was.

In Chapter 6, the 'jul' phrases in which the trailing predicate is omitted include 'jul, jul-eun, jul-iya, jul-yo', which are mainly used in newspaper articles, book titles, comments, or everyday language, and the trailing predicate is omitted.

Chapter 7 summarizes the discussions discussed above.

Key words: dependent noun 'jul', syntax, thinking, method/ability

Keywords: Dependent Noun 'jul', Construction, Thinking, Method/Ability